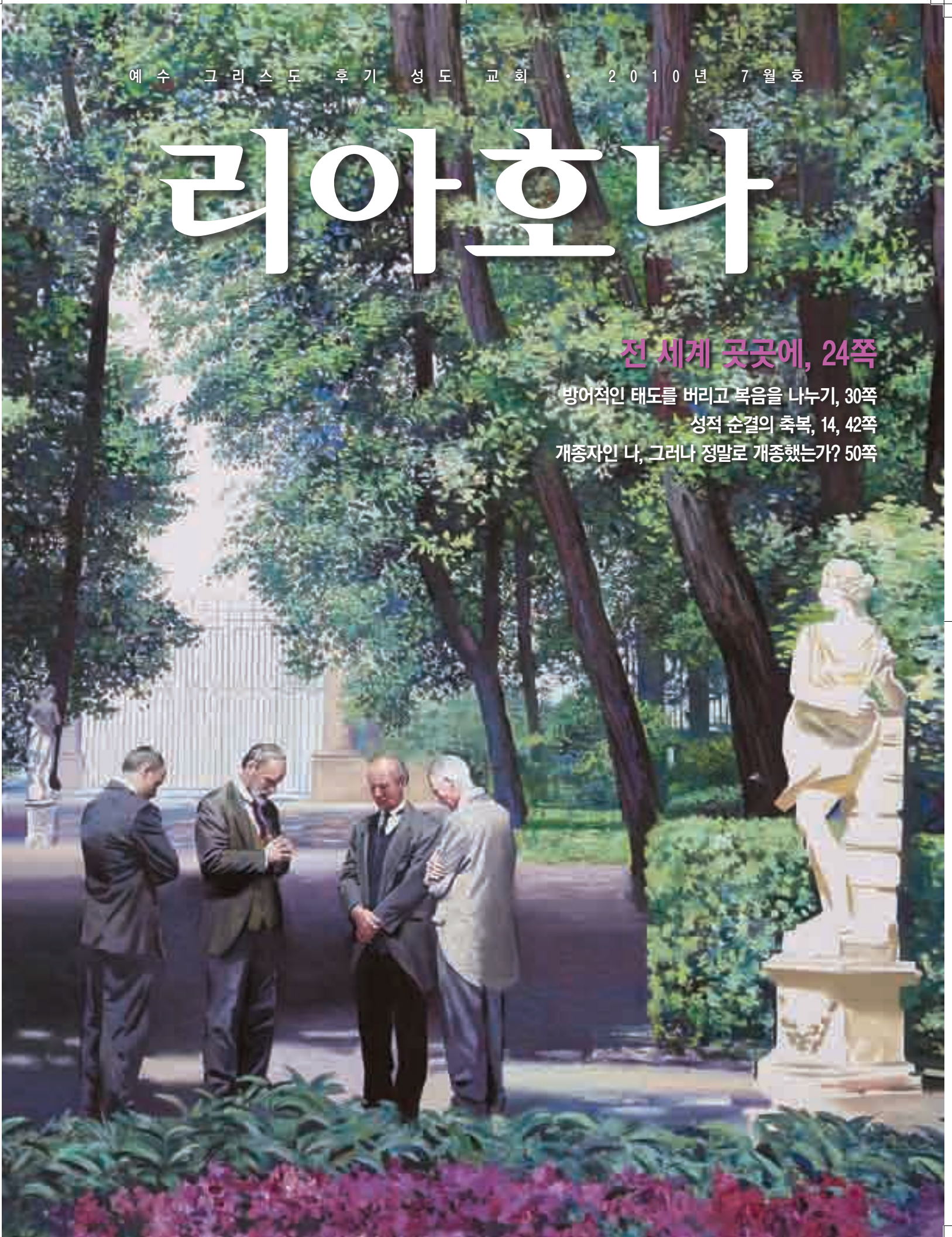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0년 7월호

리아호나

전 세계 곳곳에, 24쪽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복음을 나누기, 30쪽
 성적 순결의 축복, 14, 42쪽
 개종자인 나, 그러나 정말로 개종했는가? 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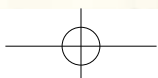


FIRST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 2018

벤보우 농장과 연못, 프랭크 말그레비

1840년 3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영국 헨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드럽 장로는 최근 개종자인 윌리엄 벤보우와 앤 벤보우를 만났다. 우드럽 장로와 벤보우 형제는 헤리퍼드셔 지역으로 가서 윌리엄의 형인 존과 그의 가족들을 가르쳤다. 벤보우의 형제들은 이웃 주민들을 초대해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게 했다. 그 결과, 열세 명이 벤보우 농장 연못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또한 이전에 다니던 교회 신도들에게 우드럽 장로를 소개했다. 6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은 연합 형제회란 교회를 직접 설립했었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해 말에 그들은 개드필드 엘름 예배당을 교회 소유로 양도했다. “전 세계 곳곳에”, 2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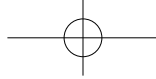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말씀

운반자들, 제이 커크 리처즈

1856년 11월 4일, 지치고 굶주린 마틴 손수레 대대는 구조자들과 함께 와이오밍 주 스위트워터 강에 도착했다. 약 80미터 폭에 수심이 허리까지 오는 강에는 큰 얼음덩어리가 여기저기 떠다녔다. 그 모습을 본 개척자들은 며칠 전 플레트 강을 건너며 겪었던 고통과 죽은 사람들이 다시 떠올랐다. 이에 많은 이들이 울부짖으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다. 젊은 구조자 몇 명은 여성과 아이들, 병약한 사람들을 안아서 얼음이 떠다니는 강 건너로 옮겼다. 이 일은 거의 하루가 걸렸다. 그들이 보여 준 동정심과 용기,

그리고 손수레를 끌며 시온으로 나아간 성도들의 희생과 고통은 구주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잘 보여준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로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태복음 5:4,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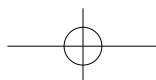
복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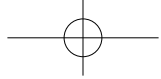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남미와 중미 국가에서 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했으며,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곳 회원들은 물론경을 사랑한다.(앞표지 참조)

하지만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복음을 나누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선지자들도 권고했듯이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지금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지역”이 개방되도록 계속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해 주도록 당부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가 따라야 할 선지자의 권고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지역이 열려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온 땅을 가득 채워”, 24쪽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충실한 친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십시오**

특집 기사

- 12 **집처럼 포근한 복음**
로젤레 하스웰 한센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처음 그 집회소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마치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18 성전을 선택하십시오

리차드 엠 롬니
인도에 사는 후기 성도들이 성전 결혼에서 얻는 축복을 간증한다.

24 온 땅을 가득 채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여기 나오는 사진과 미술품들은 그러한 성장을 증거한다.

30 자신 있게 복음을 나눕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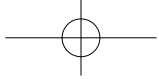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수호하는지 알고, 자신 있게 행동해야 한다.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실비아 엘보라토 크리스텐슨
- 11 **교회 봉사: 부름에서 봉사하며 받은 축복**
주디스 카스틸로 마르텔로
- 14 **우리의 믿음: 성적 순결은 우리 삶을 축복합니다**
- 16 **복음 고전: 개척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스티븐 엘 리차즈 회장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싸워야 하는가, 도망가야 하는가,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
알 발 존슨



표지
앞: 러시아 헌납, 에민 줄푸카로프.
뒤: 성약을 맺을 준비로, 에릭 두알테.



청년 성인



42

42 사랑하는 프리에다에게

청년 성인들이 남자 친구와 동거하고 싶어 하는 젊은 여성에게 조언을 써서 보낸다.

청소년



46

46 해답을 찾아서

48 포스터: 완성하기까지 40년

49 우리들 공간

50 나는 어떻게 아는가: 지식이 자라 소니아 파달라-로메로

52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 나는 청소년 시기에 간증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남을 수 있었다.

56 영원한 가족 조슈아 제이 퍼키 우안시는 가족을 잃었지만 자신의 가족이 영원히 인봉되었음을 알기에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다.

52

어린이



70

58 “안 돼!” 하고 말했다

트루먼 이 벤슨
나는 내 친구가 내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다.

60 길을 찾아 가게

안네-메트 하울랜드
낮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62 선지자의 약속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몬슨 회장은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준다.

64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어요 산드라 태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66 개척자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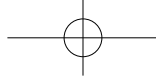
말리 워커
개척자 소녀인 크리스티나와 사라는
각자 양산을 들고 기나긴 여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양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두 소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68 우리들 이야기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2010년 7월호, 제47권, 제7호
리아호나 09287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 토마스 에스 몬스,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예프 우흐토도르프
심이사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커,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키스 케이 힐버그, 요시히코 기쿠찌, 폴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인 편집인: 래리 힐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라톤, 라렌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 애니 존스, 조슈아 제이 피커, 채드 이 페리스, 쉐인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나, 돈 엘 설,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렐
선인 비서: 로웰 튜서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머,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카비, 스코트 엠 우이,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자워크
배부 책임자: 캔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28호, 제47권, 제7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문명용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됩니다.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시모어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ly 2010 Vol. 34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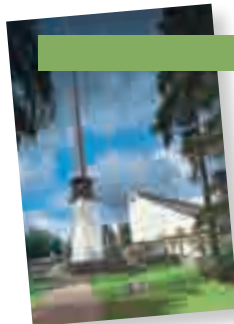
성인

"성전을 선택하십시오"(18쪽)는 성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는 인도 후기 성도들에 대한 기사이다. 이 이야기에 관한 사진을 더 보고 싶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청년 성인

"사랑하는 프리에다에게"(42쪽)는 스칸디나비아 청년 성인들이 남자 친구와 동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젊은 여성에게 쓴 편지이다. 이 주제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www.gospeletopics.lds.org를 방문하여 "Chastity"를 클릭한다.



청소년



"해답을 찾아서"(46쪽) 기사가 좋았다면 www.newera.lds.org에서 더 많은 질의응답을 찾아본다.(영어) "Got a Question?"을 클릭한다.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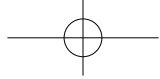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www.liahona.lds.org에서 개척자 색칠공부 책을 인쇄한다.

72쪽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림을 색칠한다. 그런 다음에 www.friend.lds.org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영어)를 읽는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충실한 친구

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훌륭한 찬사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분께 충실히 봉사한 사람들을 특별히 이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84편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니, 너희 나의 친구들이여,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줌이 적절하니 곧 너희는 내가 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여행하며 그들과 함께 한 그 시절의 나의 친구들과 같이 되라.”(교리와 성약 84:77)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를 완전한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행복이 곧 그분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모든 쫓겨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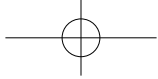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완전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타인만을 생각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치르셨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 그들의 모든 열망을 느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동기는 순수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십니다. 완전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타인만을 생각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십니다.

침례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각자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서로의 짐을 짊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모사이야서 18:8 참조)

앞으로 있을 단 며칠 사이에도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될 기회를 여러 번 맞을 것입니다. 그 기회는 먼지 나는 길을 걷다가 올 수도 있고, 열차에 몸을 실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앉을 자리를 찾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 짐은 슬픔이나 외로움, 또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은 영이 함께하셔서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처진 손을 들어올리겠다고 약속할 때에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한 옛 친구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문득 그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떠오르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문제인 양 여겨질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저에게 옛 친구들이 손을 내밀어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짊어진 짐을 친구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개종자들에게 충실한 친구가 되어 주고,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구조하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늘 구주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고 짐을 들어 올려 주려고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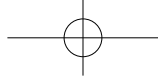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느낄 수 있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봉사할 때,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어 거듭 충실하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의 충실한 친구로 환대 받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게 될 이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경 전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살펴볼 때 뭔가를 찾아보라고 하면 가족들이 더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55쪽 참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친구로 불릴 만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찾아보도록 가족들에게 요청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구주를 알고 그를 따르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12쪽)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사로서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찾아본다. 동반자와 함께 원리들을 토론하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한 친구”가 되어 줄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



어린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바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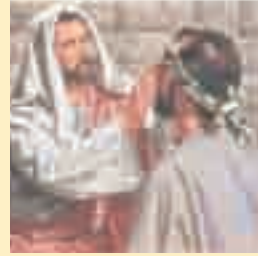


우리가 행복할 때 예수님도 행복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친구

아 이어링 회장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우정을 보여 주신 몇 가지 예를 찾아볼까요?

우리가 슬퍼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예수님도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통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기

아이여링 회장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면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찾아서 그림 속에 있는 글자를 공란에 적어 보세요.

- _____ 슬퍼하는 사람을 도와줘요.
- _____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지요.
- _____ 교회로 다시 오라고 얘기해 주어요.
- _____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해요.



청소년

새로 이사온 아이

매튜 오카베

나는 적응하느라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최근에 정 반대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새로 이사간 와드에는 청소년이 무척 많았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새로 이사온 아이”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싫은 점은 낯선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랑 같이 점심을 먹지?’ 우리 와드에 다니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서 밥을 먹고 싶지는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 사이에 끼는 걸 싫어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전학 첫 날은 더디게만 갔다. 마침내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천천히 구내식당으로 들어가면서 아는 사람을 찾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그러고는 이리저리 둘러보며 아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식당 맨 끝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다.

이후 수확시간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날 아침 세미나리에서 보았던 데이비드였다. 데이비드는 내 시간표를 물었다. 우리 둘 다 점심시간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야, 너 오늘 어디서 점심 먹었냐?” 데이비드가 물었다.

“식당 맨 끝에 앉아서 먹었어.” 내가 대답했다.

“그랬구나. 내일은 나랑 같이 점심 먹자.” 하고 데이비드가 말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린다. 가까이 우정 어린 손을 내민 친구에게도 고맙다. 같이 점심 먹자는 말처럼 단순한 것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십시오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어려운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성구: 창세기 18:19; 모사이아서 4:15; 교리와 성약 93:40; 모세서 6:55~58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강화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가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습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독신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홀로 자녀를 키우는 편부 또는 편모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각자는 가족을 강화하고 다른 가정이 강화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한번은] 제 조카딸의 집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짧게 가정의 밤을 하고 경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리하이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리하이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인 쇠막대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가르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쇠막대를 굳게 잡아 그들은 안전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쇠막대를 놓아 버린다면 더러운 강물에 빠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가 아이들이 붙들어야 할 ‘쇠막대’가 되었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안전과 행복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악마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했고, 쇠막대를 굳게 잡아야 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경전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는 가족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경전과 가정의 밤, 가족 기도는 가족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가족을 강화하고 올바른 길에 머물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¹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방문할 자매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도록 어떤 말을 하겠는가? 각 자매가 처한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영감이 떠오를 것이다.
2.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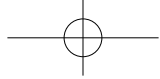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상호부조회는 처음 조직되었을 때부터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책임을 맡아 왔다. 신지자 조셉은 초기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자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집으로 가지거든 결코 남편에게 화내거나 불친절한 말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친절과 자애와 사랑으로 하십시오.”²

1914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가족[에] …… 관하여 무지하거나 최소한의 이해가 부족한 곳에서도 이 조직은 그 자리 또는 가까이에 있어서, 이 조직에 당연히 부여되고 속해 있는 권한과 영감으로 그러한 중요한 의무들에 관해 가르침을 나눌 준비와 채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³



주

1. 바바라 톰슨, “주님은 항상 너를 지키시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4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82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년), 186쪽.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성전 집중 조명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

덴마크 코펜하겐 중심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붉은 벽돌 건물은 본래 1931년에 프라이오베 예배당으로 헌납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2004년 5월 23일에 성전으로 헌납되면서 교회의 118번째 성전이 되었다. 이 성전은 “옛 모습을 간직한 새로운 성전”으로 묘사되었다.

목재 정문과 양 옆에 세워진 웅장한 기둥을 비롯한 건물 외관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복원되었다. 하지만 건물 내부는 대대적으로 재건축되었다. 성전 벽화와 그림에는 이 지역 풍경이 담겨 있다. 거기서 배어나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향취가 이 성전만의 특색을 잘 살려 준다. 공에 유리로 된 기다란



회원들이 손수 지은 이 집회소는 1931년에 헌납되었으며, 훗날 제2차 세계 대전 때에는 방공호로 쓰였다. 개조를 마친 후, 이 건물은 118번째 성전이 되었다.(아래)

창문 다섯 개는 건물 각 면을 둘러싸고, 동박(옴긴이: 동과 같은 색깔의 감으로 아주 얇은 종이처럼 만든 것)으로 된 돛 지붕이 특징이다.

성전 헌납식에서 핁클리 회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구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영광스러운 사업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하소서.”²

주

1. “2004: Year in Review”, *Church News*, 2004년 12월 25일, 13면 참조.
2. “Dedicatory Prayer”, ldschurchtemples.com/copenhagen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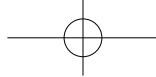


일요일 공과에서 더 많이 얻으려면

- 주중에 경전을 읽고 반원 학습 지도서나 교재를 살펴본다. 공과 끝에 나오는 질문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자문해 본다.
- 공과에 참석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영과 교사, 다른 반원에게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한다.
- 개인적으로 얻은 깨달음과 간증을 나눌 준비를 하고 공과에 참석한다.



원색: 집회소 사진, 앨마 린드 파터슨;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 사진 크레딧: 사진 크레딧: 다이먼드; 사진 심화, 크레딧: 다이먼드; 오른쪽: 인도에 온 첫 번째 선교사, 클라리콜린스, 목사 급진; 사진, 리처드 램슨



세계 교회 역사 탐방

인도

1849년, 물몬 선원 두 명이 인도로 항해했다. 그들은 켈커타에서 비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선교 사업은 1851년 조셉 리차즈가 인도에 도착해서야 시작되었다. 조셉 리차즈는 인도에서 첫 번째 교회 회원들을 침례하고 지부를 조직했다. 1852년까지 교회 회원 수는 189명이었다. 그들은 곧 작은 집회소를 지었다. 이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교회 건물이 되었다.

하지만 다음 100여 년 동안에는 선교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1978년에 부부 선교사가 교회 대표자로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고 회원들도 강화되었다.

그 이후 물몬경은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요 언어 20개 중 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힌디어, 타밀어, 텔루구어, 우르두어로는 전문이, 그리고 벵골어로는 일부분만 번역되었다.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는 1993년에 조직되었다. 2007년에는 인도 북부 지역과 인접 국가 몇 곳을 관할하는 인도 뉴델리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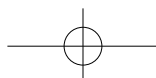
교회는 다른 인도주의 단체 50곳과 함께 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인도 정부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



새로운 개종자인 헨리 맥균(12세)이 1853년 인도 켈커타에 도착한 선교사 중 일부를 마중하고 있다.

인도의 교회	
회원	8,200명
선교부	2개
지방부	6개
지부	30개

아래: 방갈로르 제2지부의 기드온 프라브후다스와 한센 프라브후다스. 오른쪽: 하이데라바드 제4지부의 신권 소유자 모임.





내가 받은 권고를
가슴속에 새기고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니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실비아 엘보라토 크리스텐슨

19 91년 12월 16일, 그날은 결혼 8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날 아기를 돌보던 사람이 부주의해서 내 첫 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다. 아기가 태어난 지 겨우 두 달 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날 이후, 내 삶에 슬픔과 노여움, 실망,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 누구의 말이나 행동도 나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책이나 경전도 많이 읽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나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시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장로님과 대화할 기회를 맞았다. 부모님이 파우스트 장로님과 친분이 있었던 덕분이었다.(파우스트 장로님은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어머니 가족을 만나셨다.) 나는 파우스트 장로님이라면 내게 위안을 주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나는 많은 질문을 던졌고, 장로님은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파우스트 장로님은 내 경험에 분명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몇 가지 구절을 나누시고는 슬픔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들과 재회하기 위해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실비아 자매님, 이제 문제의 본질은 자매님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매님은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삶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슴속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필요한 힘을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

파우스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낙담한 상태였다. 장로님의 권고는 간단해 보였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울 듯했다. 어머니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 주지 못해 절망하셨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구주를 믿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렴.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낫기 마련이란다.”

나는 기쁨을 되찾으려는 나만의 이 여정에서 내가 받은 권고를 가슴속에 새기고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니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고 해가 거듭 바뀌면서 점점 커지는 간증과 기도에 힘입어 구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사도와 만날 기회를 얻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주를 알고 그분께 자신의 짐을 맡길 수 있다. 실제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에 함께하시며, 그 어떤 고통도 덜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시며, 끝까지 참는 일에서 모범이 되신다. 그분은 정말로 모든 것을 참으셨다. 또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그분은 아신다.(앨마서 7:11~12 참조) 이 삶에서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원래대로 맞춰 다음 삶을 준비하는 기적은 주님께서 치르신 속죄 때문에 가능해졌다.

나는 언제나 파우스트 장로님과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에 감사드린다.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 주는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



부름에서 봉사하며 받은 축복

주디스 카스틸로 마르텔로

“**주**님께서 자매님을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지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월계반을 졸업한 지 겨우 1년이 지났고, 침례를 받은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인내심이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해요.”

“자매님은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부 회장님께서 물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부름을 주실 때 그에 적합한 자격도 주십니다.”¹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 자신감이 불끈 솟아올랐다. 주님께서 나를 초등학교에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순간 깨달았다. 이 새로운 부름을 어떻게 해내야 할지는 여전히 막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몇 개월 후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고, 나는 당시에 시스템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가정과 학교, 초등학교에서 맡은 책임을 모두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점차 열정이 식어갔고, 결국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쳐 올라와 눈물을 쏟았다.

상황을 알게 된 한 와드 회원이 훌륭한 조언을 해 주었다. “주디스,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 안에서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네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걸 느끼게 될 거야.”

내게 힘을 준 그 권고를 따르면서 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신앙도 강해졌고, 내 안에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가득해졌다. 시련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부름에 전념했다. 매주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일요일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일요일마다 아이들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신앙을 보며 나는 뭔가를 배웠다. 수개월 후,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성품을 단련하시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있는 줄도 몰랐던 내 은사와 재능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알았다.

어머니가 화학치료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듬해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 달간 콜롬비아 바랑키야를 떠나 보고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나는 계속 기도했다. 나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느꼈다. 나는 전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주님께서 내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온 삶을 바치기를 바라신다는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나는 특수교육학으로 전과하여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부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면서 내 천직을 발견했으며, 복음대로 생활하고 봉사에 전념하면서 주님의 팔에 안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부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훗날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봉사하면서 얻은 간증은 교회 회원으로 생활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인도와 영감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지금 이 도시에서 2개 국어를 병용하는 학교에서 매일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그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과 노력, 축복을 떠올린다. 당시 초등학교에 참석하던 어린이들은 이제 십대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은 여전히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빛난다.

주님께서서는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단련하시며, 또한 그분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들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

주 1. Thomas S. Monson, “My Duty Calls”, *Ensign*, 1996년 5월호, 44쪽 참조.



성장할 기회

“모든 부름은 봉사하고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부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그 부름을 사람들을 강화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6쪽.



집처럼 포근한 복음

로젤레 하스웰 한센

하주 퍼스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학교에 다녔으며, 이따금 할머니와 함께 침례교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신앙을 함께 나눠 주시고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 주신 할머니 덕분에 기도는 나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나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신 할머니에게 감사한데,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어도 할머니 덕분에 직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준비시키셨음을 깨닫는다.

그러한 준비 중 하나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자동차 사고를 겪으면서 일어났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직후, 자동차가 옆으로 미끄러져 6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그때 경고하는 음성을 들었는데다가, 나와 비슷한 부상을 입은 다른 사람들은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발과 다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성스러운 힘이 작용했음을 나는 깨달았다.

2년이 지난 후 나는 교환학생으로 다시 프랑스에 갔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서 온 학교 친구 케일라 바스가 담대하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말했다. 케일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과감하게 드러냈고 나는 그런 면에 매료되었다. 케일라가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었다. 마치 이전에 들어보기라도 한 듯이 그 모든 말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다.

양굴렘 집회소에 처음 걸어 들어갔을 때, 마치 포근한 담요에 감싸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온 것만 같았다. 그날 복음 원리 반에서 공과를 하던 선교사는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강한 간증을 전했다. 성신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방법을 그가 설명할 때에는 내 심장에서 따뜻한 기운이 뿜어 나와 온 몸을 휘감았다. 그 강렬한 증거는 지울 수 없을 만큼 내 영육에 깊이 각인되었고, 내 신앙을 시험하는 시련을 겪을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양굴렘 집회소에 첫 발을 내디딘지 한 달쯤 지난 후에 나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때 나는 열여덟 살이었기에 부모님 허락은 필요 없었지만, 호주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런데 가족들은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침례를 받지 말라고 다그쳤다. 나는 충격을 받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 일은 내 마음을 짓눌렀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침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호주로 돌아갈 때까지 침례를 미루겠는가? 호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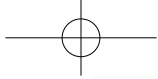
돌아가면 반대는 더 심해지겠지?

나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고서 결정을 내릴 힘을 얻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가족보다 구주를 우선순위에 두겠는가? 대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였다. 드디어 1989년 12월 16일, 나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프랑스에 머물던 나머지 날 동안 이전에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느꼈다.

퍼스로 돌아오자 가족들은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했다. 그러나 복음을 나누려고만 하면 완강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가족들은 나를 “교회”시켜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도록 도움을 줄 종교 “전문가”까지 추천했다. 그 일은 내 신앙을 시험하는 큰 시련이 되었다. 반물몬 선전으로 맹공격을 받자,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 한 편에서는 프랑스에서 겪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계속 외쳤다. 그래서 나는 강해지기 위해 주님의 영을 구했다. 여러 주 동안 일요일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전에 파묻혀 생활했다. 인도와 힘을 구하는 신권 축복도 받고, 매주 교회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어울렸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원화: 제프리 워드



계속 생각하는 대신 내가 아는 것,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교회를 회복했고, 몰몬경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족은 영원하다 등과 같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시각이 자리잡자 간증이 다시 자라고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 해 내가 겪어야 했던 마지막 시련은 가족이 참석할 수 없는 성전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했을 때였다. 나는 프랑스에 있는 동안 한 청년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우리는 편지를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 청년이 3주 동안 머물며 나를 만나려고 캘리포니아에서 찾아왔다. 우리는 서로가 결혼하고 싶어한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인봉되도록 성전에서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장소에서 결혼을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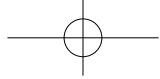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나는 스테이크 회장님의 권고에 따라 1991년 2월에 성전 결혼을 했다. 당시에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으나 우리 교회가 내 삶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다.

최근에 자녀 중 한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주님 안에서 키우기로 했던 내 결정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그 감사함에 묻어난 진지함에 몽클해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왜냐하면 복음에 따라 살기로 했던 결심이 내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축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이끌어준 지상의 천사들이 미친 영향력과 기적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드린다. 20년이 지난 후 그 모든 시련과 고통,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복음은 나에게 전부이다. 그것은 참되다. 그것은 나의 본향이다. ■

양굴렘 집회소에 처음 걸어 들어갔을 때 마치 포근한 담요에 감싸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온 것만 같았다.





성적 순결은 우리 삶을 축복합니다

순 결이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적 순결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데려오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생활 범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할 목적으로 성스러운 출산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밖에서 육체적 관계를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순결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결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성 관계도 갖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온전히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²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곧 고통스러운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³ 선지자 엘마는 성적인 죄가 살인이나 성신을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어떤 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가르쳤습니다.⁴

사탄은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용인된다고 믿도록 유혹함으로써 순결과 결혼의 성스러운

특성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라고 주신 능력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일 뿐입니다.⁵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오는 축복과 어겼을 때 오는 결과는 각자의 충동적 성향과 욕구와 성적 유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성적인 죄를 범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용서해 주십니다.⁶ 죄에서 비롯되는 절망은 용서를 통해 오는 감미로운 평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⁷

우리가 성적 순결을 유지한다면 성신의 인도에 더욱 민감해지고 힘과 위안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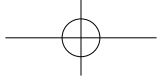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1. 순결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할 수 있다.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의 계명에 불경을 저지르는 것이며, 회개와 의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⁹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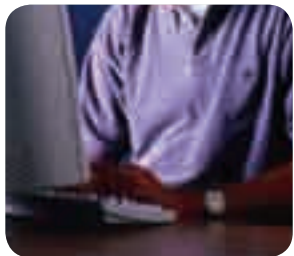
사진 삽화: 헬렌 시엔더스; 리나 레이쉬먼; 로베트 케이시; 진 프리스. © HERBICK AUS. 매튜 라인이어; 윈 투크



2.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창조물임을 이해하는지는 단정한 복장과 외모로 나타난다. 단정함은 순결을 낳는다.¹⁰



3. 외설물은 중독성이 있고 파괴적이다. 외설물에 탐닉하면 자존감과 자제력을 잃고 더욱 심각한 성적 죄까지 저지르게 된다.¹¹



4.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유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러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¹²



5. 성적인 죄를 범했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회개 절차를 밟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¹³



6. 강간이나 근친상간, 학대 또는 기타 성적 범죄를 당한 경우,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정서적 치유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¹⁴



7. 독신들은 데이트를 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건설적인 활동을 계획하며 성적인 충동을 유발하는 대화나 활동을 피한다.



8. 기혼자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배우자에게 충실한다.¹⁵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일은 합당하지 못하다. 유혹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멀리한다.¹⁶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¹⁷

주

1. 야곱서 2:7.
2. 교리와 성약 42:22 참조.
3. 출애굽기 20:14; 데살로니가전서 4:3 참조.
4. 엘마서 39:5 참조.
5. 고린도전서 7:2~5 참조.
6. 이사야 1:18 참조.
7. 교리와 성약 58:42~43 참조.
8.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년) 26~28쪽; 복음 원리(2009년), 225~232쪽; 신앙에 충실함(2004년), “순결”, 92~96쪽을 참조한다.
9. 엘마서 42:30 참조.
10. 신앙에 충실함, “단정함”, 53쪽 참조.
11. 엘마서 39:9; 제3니파이 12:28~30; 교리와 성약 42:23; 121:45 참조.
12. 고린도전서 10:13; 또한 창세기 39:1~12 참조.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킴블(2006년), 38, 41~42, 44쪽 참조; 모사이아서 26:29 참조.
14. 신앙에 충실함, “학대”, 181쪽 참조.
15. 에베소서 5:28; 교리와 성약 42:22~23 참조.
16. 데살로니가전서 5:22 참조.
17.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개척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1879년 6월 18일에 유타 주 멘든에서 태어난 스티븐 엘 리차즈 회장은 1917년에 사도로, 1951년에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 받았다. 다음 기사는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던 1947년에 리차즈 회장이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 중에서 발췌했다.

스티븐 엘 리차즈(1879~1959)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개척자를 이해하고 그들이 성취한 일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척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화를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안식할 집을 짓기 위해 왔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양심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중 다른 개척자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도망쳐 나온 그 도시로 돌아가서 박해자들에게 영감과 단합, 성공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삶과 행동 원리를 전하기 위해 확고한 신념으로 한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개척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근면함을 보였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토대가 되는 일을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아름다운 것들을

교육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차원이 높은 충실함을 보이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대업에 헌신하려는 결의가 굳건했습니다.……

이제 개척자들이 지닌 특징 중 가장 위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혜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통찰해내는 지혜 말입니다.……

우선 인간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자들은 우리 몸은 성스럽다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의 영이 지상에서 거하는 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독이나 해로운 물질을 취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몸을 더럽히거나 불결하게 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개척자들은 건강을 다스리는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둘째로 성품과 인성이 달랐습니다.…… [개척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고결한 혈통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에 동참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인생에서 이룩할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면 말입니다.……

다음은 가족입니다.…… 개척자들은 가족과 관련하여 어떻게 지혜로웠을까요? 왜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속성들을 가족에게 부여했을까요? 개척자들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기본 단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해의 왕국 최고 단계인 승영에 이를 수

개척자들이 지닌 가장 위대한 특징은 지혜입니다.]

있다는 희망도 바로 가족을 토대로 꿈꿀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은 우리 가정을 영원에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생활 안에는 가정과 가족이라는 고상한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 크나큰 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혼과 결손 가정, 가족 생활의 붕괴로 방치되고 버릇 없어진 아이들, 그래서 꾸짖음보다는 동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겸손한 개척자들에게 있었던 지혜가 온 세상 가족들에게 적용되기만 한다면 인류는 얼마나 위로 받고 행복하며 발전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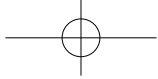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개척자들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사람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개념을 실제로 가르쳤습니다.…… 모든 곳에 평화가 깃들게 할 유일한 희망은 이 형제애라는 교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훌륭한 특징들과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바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들입니다.…… 개척자들이 “모든 산 꼭대기”(이사야 2:2)에 주님의 집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삶에 대한 이 훌륭한 메시지와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를 세워 사막을 가정과 학교, 그 외 여러 시설이 들어선 도시와 마을, 그리고 소도시로 변화시킨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희망과 신앙과,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신성하면서도 영원한 지혜라는 유익한 메시지를 시온으로부터 세상으로 전파하는 것은 훨씬 더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고결한 개척자들에게 있었으며, 또한 우리와 친구들에게 그들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하고 그에 따라 살며 그 내용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구두점, 철자, 대문자 수정.





성전을 선택하십시오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후기 성도들은 주님의 집에 갈 때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들이 들려주는 권고에 귀 기울여 보자.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집지



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성전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물으면 환한 웃음이 번지게 하는 기쁨과 소망, 믿음과 낙천주의가 묻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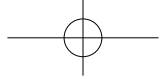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인도의 후기 성도들은 성전 결혼을 하여, 이해가 깊어지고, 성취감을 맛보고, 영원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성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다. 가장 가까운 성전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홍콩에 있지만 주님의 집을 찾아가는 회원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 기도와 신앙과 영으로 인도를 받은 이들은 성전 인봉을 선택한다.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 보자.

힘을 얻어

방갈로르 제2지부 회원인 윌리엄 프라브후다스는 법원에서 일한다. 프라브후다스 형제는 부부가 헤어지는 모습을 보는 일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고통인지를 잘 안다. 그런 까닭에 아내와 열심히 성전에 가고, 그곳에서 힘을 얻는다.

“많은 부부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해결해야 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영원한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훨씬 쉽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냅니다.”

프라브후다스 형제의 아내인 셀라는 성전에 가는 일이 자신과 남편만이 아니라 딸인 셀레스타(13세)와 도리스(7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가족



셀레스타 프라브후다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족 인봉을 받았는데,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바깥 세상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고 천국에 있는 것만 같았죠. 지금도 늘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인봉을 받았는데,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바깥 세상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고 천국에 있는 것만 같았죠. 지금도 늘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프라브후다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아내와 인봉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부 인봉이 끝났을 때 새하얀 옷을 입은 딸들이 가족 인봉을 받으려고 들어 왔죠. 딸들이 입을 옷을 보며 깨끗함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깨끗함 말입니다. 깨끗함과 성전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집에서 맺는 약속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셀레스타는 성전 여행을 하기 위해 가족이 2년 동안 일하고 계획하고 저축하던 추억을 떠올린다. 셀레스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있던

**위:
프라브후다스
가족은 인봉을
받기 위해
중국 홍콩
성전(왼쪽)으로
여행했다.
이 성전은
인도에서
가장 가까운
성전이다.**

순간이다. 셀레스타의 가족이 인봉 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삼촌과 숙모, 사촌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가족 인봉을 받은 후에 모두 함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영원에 대해 생각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두 쌍이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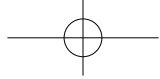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하이데라바드 제4지부 회원인 두 토마스 형제는 수년 간 서로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십대 시절에 형제는 동시에 교회 회원이 되었고, 함께 노력한 덕분에 결국 어머니도 교회에 들어왔다. 둘 다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함께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최근에 결혼했다.

레지에 토마스와 아내 메틸다는 성전에서 인봉되었고, 이들이 보인

훌륭한 모범에 따라 레지에 토마스와 아내 케르티도 곧 인봉을 받을 것이다.

레지에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들어온 날부터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였고, 구원의 계획을 배우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극히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와 가족은 변했습니다.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감사드리는 일은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레지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어려웠던 점 하나는 두 사람의 출신 지역과 사용하는 방언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저희 둘은 그 점을 기억했습니다.” 하고 레지에는 말한다. 레지에는 인도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렸다고 느낀다. “변화를 일으킬 사람은 우리입니다.” 레지에는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그런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하고 가족 경전 읽기와 가족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내 메틸다도 같은 생각이다. “어떻게 그토록 큰 이해심과 사랑을 품을 수 있냐고 묻자 남편은 복음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선교사일 때 선교부 회장님께서 사랑과 존중으로 아내를 대하시는 모범을 보았대요. 성전에서도 그런 모범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범을 보인다면, 그 영향력으로 인도에 있는 우리 교회는 강해질 거예요.”

레지에는 교회를 알아보던



레지에는 토마스는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와 가족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감사드리신 일은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위, 왼쪽부터:
레지에는 토마스,
메틸다 토마스,
케르트히 토마스,
레니에 토마스.
아래: 레니에와
케르트히는
매주 즐겁게
주일학교에
참석한다.

시기에 참석한 세미나리에서 미래에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다. “사실 세미나리 대신 크리켓 경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미나리 교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해요.’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스틱이 없었지만 세미나리 수업에 들어가서 뒷줄에 앉았죠.” 레니에는 그때 앞줄에 앉아 있던 케르트히를 보았다. 당시 케르트히는 교회 회원이 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지만 데이트를 시작한 건 레니에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후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양가 부모님께 그 결정이 옳다는 걸 납득시킨 경위를 케르트히는 이렇게 떠올린다.

“저희는 세미나리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 점을

기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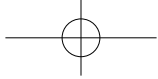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레니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부모님은 저희가 학업을 마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에게는 형이 먼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며 기다렸어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학업을 마치자마자 형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형의 결혼을 보신 장인께서 무척 감동을 받으셨어요. 형과 형수님이 보인 훌륭한 모범을 보신 장인께서 저희 결혼을 승낙하셨죠. 그런 식으로 저희는 부모님을 공경했고, 결혼 준비도 원활하게 해 나갔습니다.”

레니에는 케르트히와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회원이 회원과 결혼하는 일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결혼한다면 훨씬 더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죠. 성전이 바로 열쇠예요.”

모범을 보이는 회장

하이데라바드 제4지부 회원인 벤카트 돈나와 린다 돈나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서면 갖 결혼한 이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곳곳에 보인다. 벽에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손수 만든 대형 생일 카드가 걸려 있고, 소파 옆 탁자에는 결혼 사진첩이 놓여 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팔을 둘러고, 아내 얼굴에서는 웃음이

벤카트의 부모님은 그때 집을 짓고 있었는데 집을 완성할 때까지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셨다.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신 게 아니었어요. 얼마 동안은 기다리길 바라셨죠. 한 일 년쯤 말입니다.”



벤카트 돈나는 말한다.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떠나지 않았다.

이 부부는 교회가 후원한 활동에서 서로를 만난 과정을 들려주었다. 린다의 어머니는 교회에서 벤카트와 알고 지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약혼했을 때 무척 기뻐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벤카트에게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형이 있었다. 인도에는 아직도 동생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 또는 자매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회원은 아니지만 교회에 우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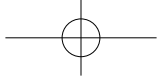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하고 벤카트는 회상한다.

“우리를 도운 건 영이었어요.” 벤카트는 말을 잇는다. “저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되도록 린다와 제가 노력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는 느낌을 받았죠.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위: 벤카트 돈나와 린다 돈나는 일곱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갔던 일을 떠올린다. 그날 두 사람은 인봉되었고, 린다는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인봉되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무렵에 때맞춰 새 집회소가 문을 열었다. 그곳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이 부부는 곧장 중국 홍콩 성전으로 가서 인봉을 받았다. 린다는 이렇게 회상한다. “일곱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갔어요. 그날 벤카트와 제가 인봉되고 나서, 어머니와 언니와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인봉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멋진 날이었어요.”

현재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벤카트는 인도에 성전이



바라트 포웰은 말한다. “저희는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로 이어졌어요. 영이 늘 저희의 결혼생활을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 “정말 큰 축복이 될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있는 곳에 시온을 건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도받은 결혼

첸나이 제2지부 회원인 바라트 포웰과 이실라 포웰 부부 이야기는 바라트의 부모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라트의 부모님인 사트히아드하스 포웰과 수리아 쿠마리는 1981년에 결혼했고, 1991년에 교회에 들어왔다. 1993년에 사트히아드하스는 지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트히아드하스 부부는 홍콩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수년간 저축하고 준비하여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가족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들은 두 아들에게 성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다.(막내 아들은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큰아들 바라트가 약혼을 하자 곧 성전 결혼이 계획되었고, 포웰 가족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약혼녀인 이실라는 새로 개종한 회원이었다. 이실라는 이렇게 말한다.

오른쪽: 바라트와 이실라의 이야기는 바라트의 부모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 쪽) 바라트의 아버지인 트히아드하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성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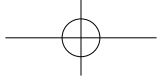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선교사를 만난 첫날부터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았고, 복음에 푹 빠졌어요.” 그때 이실라는 현지 지부 회장 가족인 이삭 가족과 친해졌는데, 이삭 가족에게 교회를 소개한 이는 바로 포웰 가족이었다.

이실라가 침례를 받을 당시에 바라트는 귀환을 4개월 남겨 둔 선교사였다. 이실라는 이렇게 말한다. “이삭 가족은 바라트가 저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미루고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었어요.” 지부 회장과 선교부 회장이 그녀의 선교사

지원서를 승인했지만, 이실라는 그때 이런 변화를 겪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니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졌죠.”

귀환한 바라트는 이실라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무척 놀랐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이삭 회장의 딸 결혼식에서 잠깐 만났지만 그다지 많은 말을 나누지는 못했다. 인도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서 몹시 격식을 차려야 한다. 그래서 바라트와 이실라는 그에 맞게 행동하고 싶었다.



3주가 지나서 이슬라는 기도를 하며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다. 바라트도 마찬가지였다. 이슬라는 이렇게 회상한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라트가 저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 이것이 제가 갈 길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알려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바라트는 이렇게 말한다. “몇몇 사람에게 이슬라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 모두 좋은 점만 이야기하더군요. 문득 ‘당장 이슬라와 이야기해 봐야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삭 지부 회장님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슬라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죠.”

그 뒷이야기는 이슬라가 들려준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부 회장님의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와서 ‘바라트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해. 네 전화번호를 알려 줘도 되니?’ 하고 말했어요.” 30분 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라트는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마치 수년 동안 서로를 알아 온 것 같았어요.”

이슬라는 종교 교육원 교육과정을 통해 성전 결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전 결혼이 아니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바라트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성전까지 여행할 경비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라트의 부모님을 포함하여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부족한 경비 때문에 성전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바라트의 아버지인 사트히아드하스는

이렇게 회상한다. “거리도 멀고 경비도 아주 많이 들어야 했지만, 우리는 모두 그들이 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치를 합법적인 예식에서 축하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인봉한 후에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했지요. 돌아오면 다시 축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성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치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전에 가라고 권고해요. 우리 아이들도 역시 성전에 가기를 바랐지요.” 사트히아드하스는 바라트와 이슬라가 부모와 관습, 그리고 자신의 선택의지를 존중하는 방식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한다.

“인도 사람들은 ‘중매결혼’인지 ‘연애결혼’인지 묻지만 우리 둘 다에 해당돼요.” 하고 바라트가 말한다. 바라트와 이슬라는 그들의 결혼을 “인도 받은 결혼”이라고 말한다. 바라트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로 이어졌어요. 영이 늘 저희의 결혼생활을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

지역 문화와 복음 문화



“복음의 목적은 평범한 인간을 해의 왕국의 백성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며, 거기에는 변화가 요구됩니다.……

전통이나 문화, 혹은 생활 양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꾸어야 할 일부 관행이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모두에게는 특별한 복음 문화, 즉 가치관과 기대와 관행이 있습니다. 이 같은 복음 생활 방식은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명,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표현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개와 변화”,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37, 38, 39쪽.



아래: 1923년 8월 26일,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앨버타 카드스턴 성전을 헌납했다.(미국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헌납된 성전) 오른쪽: 1915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가 성전 초석을 놓을 때 사용한 은 삽.



온 땅을 가득 채워



왼쪽: 미국에서 복음을 전파한 첫 번째 선교사 중 한 사람이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동생인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 위: 영국에서 봉사한 초기 선교사들은 스칸디나비아 및 유럽 국가에서 봉사한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토 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후기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 개방되도록 계속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해 주도록 당부했다.(25쪽 오른쪽 참조) 몬슨 회장은 1974년에 열린 역사적인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사 프로그램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여러 나라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들에서 잊혀진 열쇠를 찾기 위해”¹ 걸음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몬슨 회장은 우리가 계속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몬슨 회장은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안다. 김볼 회장이 그러한 내용을 전한 후에 수년 동안 선교사와 침례 받는 개종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² 김볼 회장의 요청에 따라 후기 성도들은 전 세계 국가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몬슨 회장은 실제로 수많은 지역에서 기도가 성취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는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 국가에서 문이 열리는 광경을 지켜보았다.³

사진: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 동상, 디 제이 비우먼, 오른쪽: 리버풀을 떠나 가는 성도들, 제스퍼 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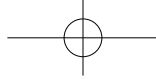


사진 촬영: 데이비드 피터



왼쪽과 위: 영국 멜버른 개드필드 엠 집회소. 이곳은 가장 오래된, 첫 번째 후기 성도 집회소이다. 1840년, 윌포드 우드럽 장로가 이곳에서 모임을 하던 연합 형제회 회원 600명을 개종시켰다. 개종자들은 그들 소유였던 이 집회소를 교회에 기증했고, 이곳은 지역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훗날 이들은 지역 회원들이 시온으로 모이는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집회소를 처분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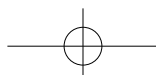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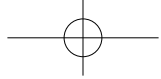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왼쪽: 새뮤얼 에이지, 스미스 동성, 디 제이 비우먼, 오른쪽: 리버풀을 떠나는 성도들, 킵 베스터

1851년 2월 1일, 영국 리버풀에서 미국으로 출항할 준비를 하는 엘렌 마리아 호. 당시 영국 제도에는 5만 명이 넘는 후기 성도가 있었다.

가난한 후기 성도들은 나중에 돈을 갚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조건으로 영구 이민 기금에서 용자를 받았기에 이주할 수

있었다. 수천 명에 이르는 개종자들이 미국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낯선 땅으로 향했다.





문슨 회장을 비롯하여 복음이 회복된 이래 후기에 보내진 모든 선지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42년 3월에 기록한 다음 말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았다.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가 들끓고 폭도들이 연합하고 군대가 모이고 중상모략으로 명예가 훼손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에 뻗어나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릴 때까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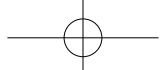


왼쪽: 1882년 집회소 사진: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위: 약속 알 라운즈: 왼쪽 아래: 연원을 위해 오늘을 충실하게, 실비아 휴즈 드 서빌, 제4회 국제 미술 대회: 아래: 리하이의 꿈, 아라셀리 안드라데, 제7회 국제 미술 대회

19세기에 복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역 중에는 많은 “바다의 섬들”도 있었다. 맨 왼쪽: 1882년에 촬영된 이 하와이 집회소는 하와이 라이에 성전(왼쪽)으로 탈바꿈했다. 이 성전은 1919년에 완공되었다. 왼쪽 아래: 1854년 선교사들이 도착한 후, 뉴질랜드에는 복음이 만발했다. 아래: 이 작품은 멕시코 치아파스 이자파에 있는 80개 비석 중 하나인 5번 석판의 모형이다. 이 석판은 생명 나무 비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 석판이 리하이의 꿈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니파이전서 8장 참조)



26 리아호나



오른쪽: 1960년대에 수많은 나이지리아 및 가나 사람들은 교회 서적을 읽고 간증을 얻었다. 1978년 선교사들이 도착할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 수백 명이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만에 약 1,700명이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저는 믿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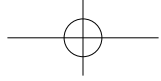
1964년,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슨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과 물문경을 읽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존슨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 메시지를 나누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천 명이 넘는 개종자를 10개 조직으로 나누어 모임을 이끌었다. 1978년 6월, 존슨은 영국 방송 협회 라디오 방송을 들으라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께서 세계 어느 지역에 있던 모든 합당한 남성엔 신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죠.”

E. Dale LeBaron, “Steadfast African Pioneer”, *Ensign*, 1999년 12월호, 45쪽 참조.



맨 위: 1978년, 침례 받는 나이지리아 사람들 사진 촬영: 자네스 캐논: 위: 후기 성도들이 시에라리온에서 성임을 받. 에일 윌슨: 오른쪽: 시에라리온에서 배운 침례. 에일 윌슨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⁴

신앙과 기도로 단합하여
 몬슨 회장이 준 과제를
 받아들여서 오늘날 닫혀
 있는 지역들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힘을
 쏟도록 하자.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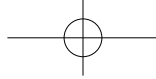
1. 스펜서 터블류 킴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성도의 벗, 1974년 11월호, 3쪽.
2. “Status Report on Missionary Work: A Conversation with Elder Thomas S. Monson, Chairman of the Missionary Committee of the Council of the Twelve”, *Ensign*, 1977년 10월호, 8쪽 참조.
3. 제롤드 데이비스 및 노마 데이비스, “장막 뒤에서: 동독의 교회”, 성도의 벗, 1992년 2월호, 12쪽 참조.
4. *History of the Church*, 4:540.
5. “President Hinckley Visits Asian Saints, Dedicates Hong Kong Temple”, *Ensign*, 1996년 8월호, 74쪽.

왼쪽: 이 자수의 색상과 짜임새에는 지난 50년간 멕시코, 중미, 남미 교회가 이룬 비약적인 성장의 힘이 담겨 있다. 이 회원들은 물론경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한다. 작품에 묘사된 성전은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이다.

아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영향을 입은 폴란드에는 현재 1,500명이 넘는 회원이 살고 있다. 그들은 다른 모든 후기 성도와 마찬가지로 첫번째 시현(아래: 폴란드 화가가 조각함)과 같은 믿음에 간증의 뿌리를 둔다.



왼쪽: 시현에서 조각/철링 만들어진 케리메인틀 마리아 클레디스 비미엔투스 드 몬테로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케리메인틀 마리아 클레디스 비미엔투스 드 몬테로스 교회는 폴란드에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막대한 영향을 입은 폴란드에는 현재 1,500명이 넘는 회원이 살고 있다. 그들은 다른 모든 후기 성도와 마찬가지로 첫번째 시현(아래: 폴란드 화가가 조각함)과 같은 믿음에 간증의 뿌리를 둔다.



일본: 아시아 교회의 성장

19 96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노변의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1901년 1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가 일본에 방문한 일을 언급했다. “그랜트 장로님과 선교사 세 명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본을 헌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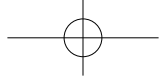
힝클리 회장은 일본 교회가 이룩한 성장을 언급하며(현재 회원이 12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랜트 회장님이 계셨다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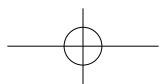
맨 위: 1996년,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아내인 마조리 힝클리 자매의 방문을 축하하는 아시아인들. **맨 위 가운데:** 아시아 문화와 후기 성도 분위기가 동시에 풍기는 대만 회원들 모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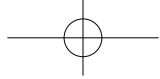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우리는 복음이 어느 문화에나 젖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맨 위 오른쪽:**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가운데)는 선교사들과 함께 1901년 9월 1일에 선교 사업을 위해 일본을 헌납했다.

위: 1903년 8월, 사도였던 프랜시스 엠 리만 장로와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러시아를 헌납하고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였다.



상화: 그레그 토렌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신 있게 복음을 나눔시다

하나님 아들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최선을 다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무엇도 방어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선과 악은 늘 존재했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건히 진리를 수호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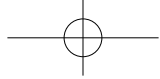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최근에 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보는 몇 가지 조사 자료를 접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 온 주제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선교 사업과 긴히 관련된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알면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교회 회원들은 때때로 비회원들에게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한 응답자는 물론들이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때 비판을 각오한 투로 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조사 내용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점을 생각해 볼수록 저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느낌을 쉽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20년 봄,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나오던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심지어 적의에 찬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 자신이 본 시현을 처음으로 나누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다지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감리교 목사는 조셉 스미스에게 “모두 악마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이제는 “시현이나 계시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21)

조셉이 이 경험을 불쾌하게 여겼다면 그것은



대적의 가혹한 권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적대자들은 더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충실한 성도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쫓겨났습니다. 조셉은 미주리 주 주지사가 물론 근절령을 내리고, 선지자와 그 일행이 리버티 감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을 때, 그보다 더한 일은 없으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물론 더 끔찍한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조셉과 하이럼은 그들이 이룬 업적과 간증과 신앙에 대한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로 브리검 영이 이끄는 서부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야를 건너 미국 로키산맥에 있는 피난처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후기 성도가 겪은 역경과 희생 이야기는 이제 잊혀지지 않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개종자들은 비록 자신의 조상이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더라도 초기 교회 역사 속 인물들과 사건들을 자신의 유산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연히 우리를 복돋우고 영감을 줍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안락하게 지내는 우리가 굳건하고 충실했던 초기 교회 후기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1830년이 아니며, 이제 우리는 여섯 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감지하는 방어적인 태도는 우리가 아직도 서부로 쫓겨나던 소수의 혐오 대상자처럼 취급 받으리라 예상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과 어울릴 때마다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비판이나 반대를 걱정한다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방해되는 불건전한 자의식과 방어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교회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큰 무리로서 우리의 현 위치에 걸맞지 않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본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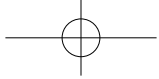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모든 면에서 우리는 구주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역을 베푸실 때 초반부터 크나큰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누가복음 4:28~29 참조)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술한 오해를 받으리란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말로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마태복음 5:21~22)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아셨으며 미안해하지 않고 전하셨습니다. 경전에 나온 바와 같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습니다.]”(마태복음 7:29)

오늘날 우리 모습 그대로 존중 받고 싶다면 자신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수호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사과해야 한다는



32 리아호나



듯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를 항상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원칙은 신앙개조에도 나와 있습니다.(신앙개조 제11조 참조) 그러나 우리가 핍박 받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오해나 비판을 각오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반응할 것입니다.

특히 귀환 선교사 여러분께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년 동안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온갖 의심 어린 질문과 반대에 맞셨습니다. 아직도 대화를 할 때마다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나눌 기회가 온다면 대화를

회피하거나 비판을 각오한 듯 조심조심 받을 디딜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로마서 1:16)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회복 메시지에 관해 간증을 나눌 모든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또한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든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지금 이 교회가 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는 네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후기 성도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북방에서 남방까지 모든 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서부에 치우쳐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나라에 있는 일반인들이 점차 후기 성도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교회 회원들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를 실은 타임(Time)지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몇몇 저명한 후기 성도들의 사진을 실었습니다.¹

이러한 유명세만 보더라도 교회가 더 자주 거론되고, 후기 성도가 더 많은 복음 토론에 참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솔직하고 호감을 주며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방어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겠습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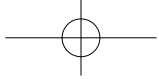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 모습 그대로 존중 받고 싶다면
자신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수호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무의미한 사안들에 신경 쓰느라 더 중요한 주제들을 묻어 두지 마십시오.

교회 회원들은 사람들이 대화 주제를 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가 복수 결혼입니다. 복수 결혼은 1890년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은 2010년입니다. 왜 아직도 복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한때 시행되었다가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약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다처제에 대해 묻는다면, 그것은 한때 시행되었고, 지금은 시행되지 않으며, 일부다처주의자들과 우리 교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만 말하십시오. 일상적인 대화에서 구약시대에 시행된 일부다처제를 정당화하거나 19세기에 잠깐 복수 결혼이 시행된 이유를 추측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주제는 역사가와 학자들에게나 적절할 것입니다. 저는 복수 결혼을 교회에 관한 기본적인 대화 주제로 삼을 때 고정관념이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대화는 매체에서 떠도는 이야기에서 불거져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2009년, 일부다처주의자를 그린 한 케이블 방송국 연속물은 극 중에서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묘사했습니다.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성전 의식을 묘사한 것에 대해 큰 우려가 일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로 모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같은 묘사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 공보부가 교회 뉴스룸 웹 사이트에 실은 기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는 동안 기사어의 어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스러운 종교 의식 중 하나를 부적절하게 묘사한 것에 대해 응수합니다.

“다른 대규모 종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할리우드나 브로드웨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서적,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경우가 있다. 교회와 회원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할 때도 있지만 왜곡된 모습이나 고정관념을 반영한 경우도 있다. 때로는 매우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천주교인과 유대교인, 이슬람교인들이 수세기 동안 경험해 왔듯이 어떤 단체나 종교 집단의 규모나 지명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면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 기사는 일부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해당 방송국이나 계열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조직적인 시정 거부 운동이 활발하게 번져 나가는 상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시정 거부 운동을 선동하는 데 반대한다. 그러한 운동은 매체들이 선호하는 논란만 양산할 뿐이며, 결국은 해당 방송물에 대한 시청률만 높일

것이다…… 후기 성도들은 품위 있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보이신 모범을 따르는 일일 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회원들의 힘과 성숙도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비판론자와 반대세력들이 의도하는 대로 싸움에 말려들게 되면 교회는 결국 180년간 성공적으로 지속해 온 노력과 지향점에서 벗어나는 위험에 처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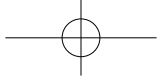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수 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계속 힘을 것이다.”²

또 다른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7년 한 독립영화가사 마운틴매도우 학살 사건을 다루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아주 나쁜 영화란 표현도 너그러울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는 할리우드 비평가들도 혹평할 만큼 형편없습니다. 기획자들은 교회를 자극하여 큰 논란거리로 삼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화 주제를 정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으며, 제작자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건설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마운틴매도우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연루된 희생자들의 후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Massacre at Mountain Meadows(마운틴매도우에서 벌어진 대학살)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여기에는 이 비극을 둘러싼 진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종교와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며, 우리가 ……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2. 후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그분을 따르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종교와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며,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흡족한 방법으로 생활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이고 조셉 스미스의 기초였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 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³

교회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 점이 중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근간이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최선을 다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무엇도 방어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교리는 극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고,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어디로 갈지 알게 됩니다. 구원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행복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아니고는 계명을 변경할 권세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에서 점차 떨어져 나가 속세를 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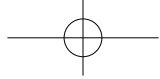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디모데후서 4:3~4).

지금이 바로 바울이 예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속의 계획, 속죄, 회개, 용서, 죽음 이후의 삶, 부활, 영생, 영원히 함께 인봉되는 영원한 가족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서 오는 충만한 축복이 없는 삶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행복의 계획,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압니다. 우리는 그 교리에 따라 생활하고 또한 늘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젊은 세대는 주님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분의 교회를 세울 방법을 배워야 하는





청소년

캐시를 구하라

다윈 리차드슨

19 76년 1월, 사회 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는 우리 부부가 수양 자녀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당시에 우리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지만 열일곱 살 난 캐시를 맞아 주기로 했다.

캐시가 우리 집으로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캐시는 함께 교회에 참석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곧 캐시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캐시가 전에 다니던 다른 교회에서는 캐시가 후기 성도 교회에 참석한다는 걸 알고 탐탁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캐시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청소년 진도 모임으로 “캐시를 구하라”라는 모임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더러 그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를 방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러겠다고 했다. 캐시의 친구들과 서로 다른 교리를

놓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캐시가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아직 아는 게 많지 않았다. 나는 최근에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리차드 존스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캐시를 구하라” 모임이 열리는 날이 되자 우리는 모두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 나는 그 모임에 영이 임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날 저녁에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다소 적대심이 느껴졌다. 그러나 청소년 담당 목사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청소년들에게 우리 교회와 믿음에 대해 말해 달라고 권했다. 리차드는 선교사 첫 번째 토론을 자연스럽게 전했고 회복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그곳에 앉아 있던 열다섯 명쯤 되는 청소년들은 주의 깊게 들었고, 청소년 담당 목사마저도 넋을 잃고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후 나머지 시간은 질문에 답하고 복음에 대해 멋지게 토론했다. 온화한 태도로 우리의 믿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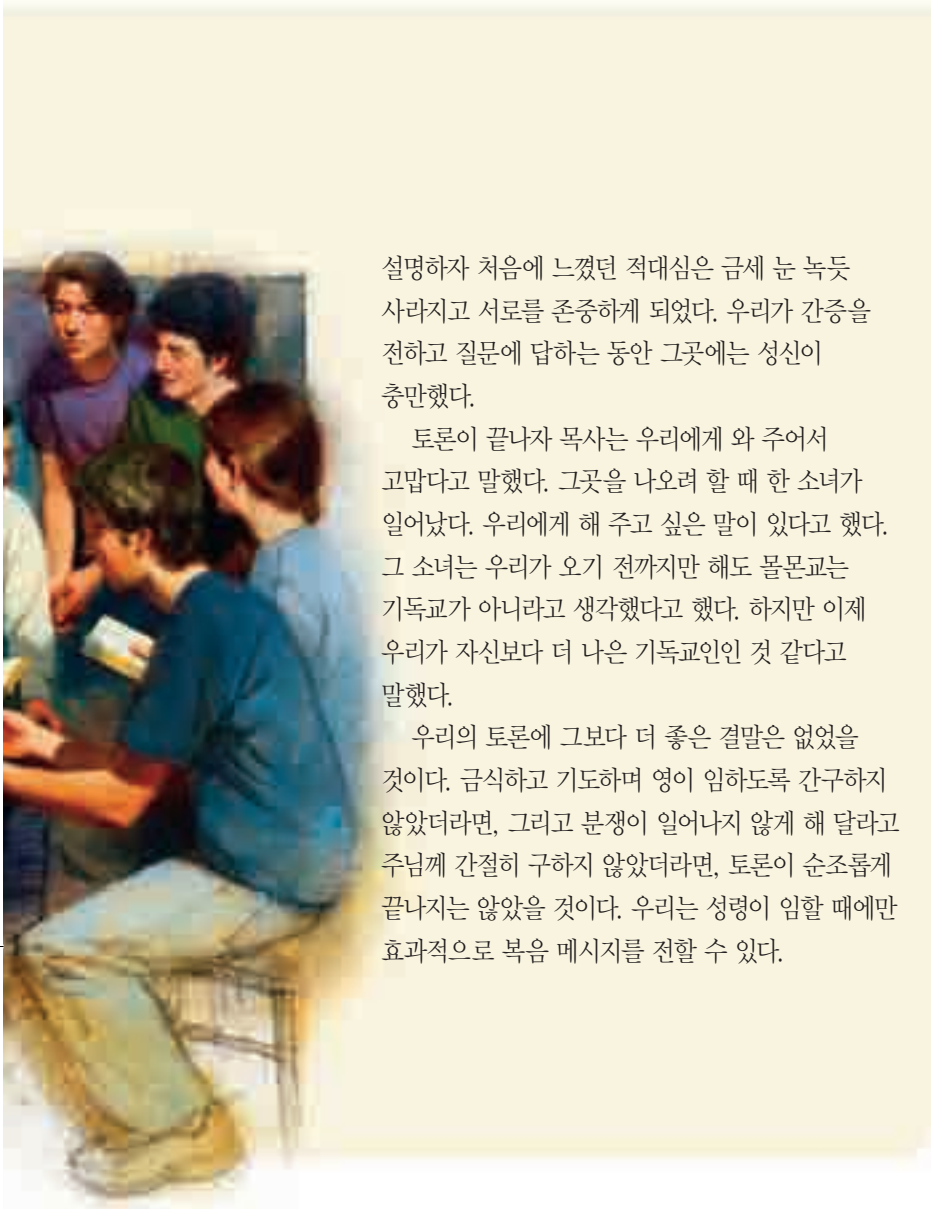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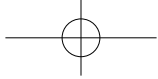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책임을 받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과 친절을 담아 그 믿음을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된 교리를 가르칠 때, 진리는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이웃을 섬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봉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펼쳐는 인도주의적 봉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믿습니다.(마태복음 25:40)
2. 우리는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릅니다. 이 교리는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약물 남용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영원한 영이 거할 처소이며, 강인한 영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때 이생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며, 하나님은 이 계명을 폐하거나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이 율법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누구도 주님께서 정하신 범위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동성애 행위나 이성간의 혼외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4.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설명하자 처음에 느꼈던 적대심은 금세 눈 녹듯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 우리가 간증을 전하고 질문에 답하는 동안 그곳에는 성신이 충만했다.

토론이 끝나자 목사는 우리에게 와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곳을 나오려 할 때 한 소녀가 일어났다. 우리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 소녀는 우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몰몬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신보다 더 나은 기독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의 토론에 그보다 더 좋은 결말은 없었을 것이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영이 임하도록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더라면, 토론이 순조롭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에만 효과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세기 2:24)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세기 1:28)라고 명하셨습니다.

현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1995년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이 계명을 재천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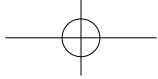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들과 그 외 회복된 모든 훌륭한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러한 원리와 교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은 이토록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된 복음에 관한 대화에 참여시키면서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09년 8월 13일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식 말씀에서 발췌. 말씀 전문을 영어로 읽으려면 www.newsroom.lds.org를 방문한다. (“News Releases & Stories”를 클릭한다.)

주

1. David Van Biema, “The Church and Gay Marriage: Are Mormons Misunderstood?” *Time*, 2009년 6월 22일, 49~53쪽 참조.
2. “The Publicity Dilemma,” newsroom.lds.org/ldsnewsroom/eng/commentary/the-publicity-dilemma.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9쪽.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성전에 가려고

2001년에 침례를 받은 이후, 나와 남편은 영원히 인봉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가는 일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성전에 가기도 전에 남편이 간질환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큰 상실감에 빠졌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인봉되어야 한다는 소망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더욱 커졌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홀로 네 자녀를 키우는 처지에 가족을 데리고 캄보디아에서 약 1,600킬로미터나 떨어진 중국 홍콩 성전까지 가는 경비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나와 자녀들은 가족으로서 영원히 인봉 받기 위해 성전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호텔에서 세탁 일을 계속하며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이런저런 일을 하며 거들었다. 그러나 여행 경비를 조금씩 모으던 나는 곧 그런 식으로는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지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물건보다도 영원한 가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물건 중 유일하게 값나가는 물건을 팔기로 했다. 바로 죽은 남편이 남긴 오토바이였다. 많은 돈을 받고 그

성전에 가기 위해 조금씩 돈을 저축했지만 집에 도둑을 맞은 후 필요한 경비를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토바이를 팔면서, 머지않아 우리 가족은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자 내 남편인 그에게 인봉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오토바이를 팔고 일주일이 지난 후, 집에 도둑이 들었다. 교회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 오토바이를 팔고 받은 돈이 사라졌고, 슬픔이 한없이 밀려왔다. 도둑을 맞고 나서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은 성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기도를 드렸다.

몇 개월이 지나자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다. 성전 참여자 일반 보조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그 소식을 듣고서 나는 떨 듯이 기뻐다. 드디어 꿈에만 그리던 성전 여행을 하게 되었다.

다른 후기 성도들이 보여 준 관대함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 크흠 코엠티, 캄보디아

* 성전 참여자 일반 보조금은 다른 방법으로는 성전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회원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선풍기, 진공 청소기, 쿠키 한 접시

때는 여름이었다.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자동차로 3,200킬로미터를 횡단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기대감에 들뜨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향과 가족과 익숙한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새로 깎 양탄자에 얼룩이 묻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들고는 발 밑에 종이를 깔고 짐을 내렸다. 전에 폭우로 지하실에 물이 찬 경험이 있기에 짐을 모두 내리고 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하실을 살폈다.



ILLUSTRATIONS BY ANTONIO DIDONATO



자 정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린지 스웰 형제님이 서 계셨다. 그분은 와드에서 유일하게 아는 회원이었다.

그날 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했다. 세 아이들도 마침내 잠이 들었고, 그레그와 나도 서둘러 잠자리를 준비했다. 우리 둘 다 녹초가 된 터라 어서 빨리 침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그레그는 다른 상자에 있는 짐을 풀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보.” 내가 말했다. “오늘은 그만 자요. 내일 아침에 해도 되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가로챘더니 지하실로 내려갔다. 좀 있자 남편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놀란 나는 지하실로 달려갔다. 물이 조금 차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는데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불어났다. 곧바로 우리는 가파른 계단 위로 상자를 하나씩 끌며 위로 옮겼다. 나는 망연자실했고 얼굴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바닥을 메운 빗물과 섞였다.

우리는 새로운 와드에서 유일하게 아는 회원인 린지 스웰 형제님에게 전화를 걸어 배수 펌프 사용법을 물었다. 스웰 형제님은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려 주었다. 나는 조금이나마 물건을 더 건져보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자정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스웰 형제님이 선풍기와 습식 진공청소기, 그리고 초콜릿칩 쿠키 한 접시를 들고 서 계셨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스웰 형제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순식간에 여기가 바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웰 형제님은 밤새 우리와 함께 지하실에 찬 물을 빼내느라 애쓰셨다. 지하실 물 높이가 30센티미터 정도가 되자, 스웰 형제님은 소방서에 전화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소방서에서 커다란 펌프를 가져왔고,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음날 아침, 스웰 자매님과 와드 회원들이 음식과 연장선,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방문했다. 회원들이 보여 준 선행으로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결국 짐을 모두 건져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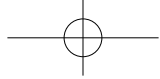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어디로 가든 그곳에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가족을 환영해 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돕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

린디 호스 제이콥슨, 미국 유타 주

봉사하기에는 너무 바쁘지 않은가

19 97년, 지부 회장님은 집회소 근처에서 지부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다. 그때는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한 지 150주년 되는 해였고,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이 펼치는 기념행사에 우리도 동참할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한 것이었다.

우리는 길거리를 청소하고 도로 웅덩이를 메우는 일 등을 계획했다. 지부 회장님은 우리 옷은 더러워지겠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 시간에 학교에서 보충 강의를 있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나는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나는 우연히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라는 소책자를 보게 되었다. 성도들이 미국 서부로 이동하면서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읽고 나는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안락한 집을 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막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 여행길에서 모든 가족을 여의었으면서도 힘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성도들도 있었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과 배고픔과 가난,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서부로 이주하면 박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다.

교회가 계속 전진하도록 초기 성도들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희생과 신앙 덕분에 나는 지금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에 비하면 지금 내가 하는 희생은 얼마나 작은 일인가. 겨우 두 시간을 내어 봉사하면서 몇몇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려는 것인데, 그마저도 하지 않을 구실을 나는 찾고 있었다.

결국 나는 보충 강의는 있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몸은 더러워졌지만 찾아와서 교회에 대해 묻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 활동에 참여해서 나는 참 행복했다. 그리고 강의에 몇 번 빠지기는 했지만 아무 탈 없이 대학교를 졸업했다. ■

엔고지 프랜시스카 오코로, 나이지리아

시칠리아에서 나를 잊고 봉사하던 시절

“제 이름은 오마르 인테르도나도입니다.” 이메일은 그렇게 시작했다. “피오렐라 이탈리아의 아들이죠. 제 어머니의 침례를 아직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30년 전 선교 사업을 할 때 나와 동반자는 시칠리아 섬으로 이동하여 지중해 연안 아름다운 도시 시라쿠사에서 봉사했다. 일요일이면 우리는 그 지역의 일부 후기 성도들과 오래된 저택에서 만나, 저택 거실에서 성찬식 모임을 했다.

선교 사업은 어려웠다. 침례도 가문에 콩 나듯 했다. 그 도시에 전임 선교사가 열여섯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도시 곳곳은 이미 여러 차례 가가호호 방문을 받아 본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동반자와 도시 지도를 살펴다가 우리 아파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외곽에 작은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들판을 지나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산마루 끝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간구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주민 대다수가 사는 다세대 주택 단지에 들어가 가가호호를 했다.

마침내 우리는 검은 옷을 입은 한 40대 여성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검정색 옷을 입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방법을 바꿔서 구원의 계획을 강조했다. 그 여성은 우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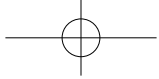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우리는 십대 딸 두 명과 딸들의 친구 한 명도 만나게 되었다. 그 자매님은 최근에 남편을 여의었고, 이제 혼자서 십대 자녀 네 명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인간의 행복 추구라는 슬라이드를 보여 주었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았다.

그 미망인과 장남, 십대 딸 두 명, 미망인의 어머니와 딸의 친구는 결국 침례를 받았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나는 그 가족과는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다. 하지만 이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소식을 듣지 못해 딸의 친구였던 피오렐라는 어떻게 지내는지 늘 궁금했었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산마루 끝에서 동반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간구했다. 그리고 가가호호를 시작했다.

“제 어머니는 평생 복음에 충실하셨고 1983년에는 메시나 지부의 훌륭한 교회 회원과 결혼을 하시고 성전에서 인봉을 받으셨습니다.” 피오렐라의 아들이 보낸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1984년에 태어났고 제 여동생 베로니카는 1987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둘 다 활동 회원입니다. 저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플로리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두 선교사를 보내주신 주님께 빛을 갠고 싶었거든요.”

선교사 시절에 나는 과연 2년 동안 이렇게 희생하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동반자와 내가 시칠리아 섬에서 자신을 잇고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했기에 피오렐라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느꼈다.(교리와 성약 18:15~16 참조) ■ 루이스 멘디토, 미국 네바다 주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린 시절에 종종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지금의 내가 되기 이전에 어딘가에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수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그런 생각을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날더러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냐고 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십대 초반 무렵, 하루는 용기를 내어 교회 목사님께 “지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서 살았나요?” 하고 물었다.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도 살지 않았으며,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는 목사님이 옳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계속 답을 찾았지만 답을 알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열여덟 살 때 우리 가족은 이사했는데, 그때 나는 새로운 지역에 사는 전도사들이 이전 지역 목사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중 한 명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대답을 할 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게 좋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얼마 후에 나는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직장을 구하고 한 청년을 만나 결혼했지만 5년 후에 내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막을 내렸다. 나는 짐을 싸서 두 자녀를 데리고 임신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내가 결혼 생활을 하던 5년 동안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하셨다. 엄마는 집에 들른 나에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시며 선교사들과 이야기해 보라고 권하셨다. 마침내 승낙하기는 했지만 장로들이 지금의 내가 되기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 대답할 수 있을 경우에만 선교사 토론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놀랍게도, 선교사들은 내 질문에 답했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답이 될 만한 구절까지 알려 주었다.(욥기 38:4~7; 예레미야 1:5; 유다서 1:6 참조) 그 후로 나는 선교사들이 하는 말에 완전히 몰두했다. 선교사들의 대답을 듣고서야 내가 왜 살아오면서 계속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나는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안다.

오래지 않아 나는 교회 회원이 되었다. 생애 처음으로 정체성을 느꼈으며 추구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누구도 답하지 못한 질문에 선교사들이 답을 해 주어서 참 감사하다. ■

베티 할로웰, 미국 인디애나 주





사랑하는 프리에다에게

청년 성인들이 남자 친구와 동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한 독신
자매에게 조언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가 치관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표준에
충실하게 남는 일은 영적으로 살아남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성약을 잘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만 해도 유혹에 맞설 큰 힘을 얻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충실하게 남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에 대해 말씀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섬길지 내년에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지기 전, 아직 대낮일 때,
바로 ‘오늘’ 결정하라고 했습니다.(여호수아 24:15
참조)……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천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볼 때 이 순간이 정말
중요했다고, 오늘이 바로 결정의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¹

유럽에 사는 프리에다*는 그런 결정의 순간을
앞에 두고 있다. 프리에다는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회원인 남자 친구와 동거를
시작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프리에다는 몇
년 후에 회개를 하고 교회에 다시 돌아와 성전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단지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고 말한다.

스칸디나비아 청년 성인들은 프리에다에게
편지를 쓰도록 부탁을 받았다. 그 청년 성인들은
프리에다의 실제 이름이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프리에다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간증과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다음은 프리에다와 포레인 스칸디나비아 친구들이

보낸 편지이다. 공유해도 괜찮다고 동의한 내용에서
발췌되었다.

성전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해

내 친구 에리카*는 회원이 아닌 남자 친구와
동거하기 전에 복음에는 충실히 남겠다고
가족들을 안심시켰었어. 하지만 막상 동거를 하게
되자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란 쉽지 않았지.
이제 에리카는 원래 있던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해.

불행하게도 내게는 에리카와 같은 친구가 많아.
교회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모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지침들을 무시할 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힘을 얻는 것 같아.

친구들 경험을 보면서 나도 많은 걸 배웠어.
나는 열일곱 살 때 매우 강한 간증을 얻고 싶었어.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러한 간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강한 간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았어.

내겐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심이야. 성전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야. 또한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성전에 가려면, 복음 지침을 따라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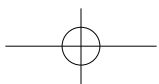


남 자 친구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면
남자 친구를 성전에 데리고 가. 그리고 남자 친구에게 영원한 결혼에 대한 네 꿈을 이야기해 줘. 신앙에 대해서도 말해 주고, 남자 친구가 성전 결혼이 왜 그렇게 너에게 중요한 일인지 알아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 애는 네 짝이 아니야. 성전 결혼을 하려는 네 꿈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해.
스틴 하일랜더, 덴마크

사 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뿌리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잘 알아.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도 이해해. 나중에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영이 속삭이는 말을 계속 무시하면 그 음성을 듣는 능력을 잃게 되거든. 나도 그랬었어.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회개를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돼.
익명

우 리의 목자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간증을 말해 주고 싶어. 나의 목자이기도하신 그분은 내가 그분의 방법을 따랐을 때 필요한 것을 주셨어.

너는 완전해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속죄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 그 행복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커다랄지.
아나 팜 게르보, 스웨덴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 믿었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해 주셨어.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언제나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지.

익명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성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나도 알아. 정말 힘들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지. 하지만 그 일시적인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깨뜨린 결과로 느끼게 될 영원한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희망은 있어. 그리고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마리에 베르틸손 올손, 스웨덴

아 내가 될 사람을 찾는 사람으로서 나는 요즘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이따금 괴로워해. 내 아내에게 “당신을 만나기 전에도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아껴 두었지.”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느꼈던 고통을 가장 나쁜 나의 적이 느끼기를 바란다는 건 아니야. 애초에 하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익명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어.

시간을 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 오늘 내린 결정으로 미래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도 생각해 보고.

아만다 번스코프, 덴마크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

이 세상에서 누구나 바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그건 사랑 받는 일일 거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단지 끌리는 것 그 이상이야. 진정한 사랑은 신뢰이자,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거야. 비이기적이고 진심이 우러나며, 때로는 희생을 수반하기도 하지. 그건 바로 때에 따라서는 무언가를 주고 고통을 감수한다는 뜻이기도 해.

프리에다, 네가 내릴 결정에 따라 네 삶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거야. 어느 편에 속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 사탄은 가족을 붕괴시키려고 밤낮없이 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용기를 내서 옳다고 알고 있는 길을 따라가. 영원한 성전 결혼에 못 미치는 생활을 받아들여려고 하지 마.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진정한 사랑은 성적인 환상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야.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이 은사는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어.

데이비드 이사크센, 노르웨이

돌아올 결심을 해

나는 열일곱 살 때, 더는 교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 당시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교회에 발길을 끊으셨지. 그래도 나는 계속 다녔어. 하지만 영원한 결혼에 대한 신앙은 잃어버렸지. 내가 크리스티안*을 만났을 때 교회에 등을 돌리고 뛰쳐나오기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

크리스티안과 나는 거의 4년간 함께 생활하다 헤어졌어.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캐물을까 봐 두려웠어. 그러다 한번은 언니 집에 갔는데, 그 와드에는 나를 알거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원래 와드에 참석하기 시작했지. 첫 번째 일요일은 정말로 겁이 많이 났는데, 회원들은 내가 참석한 것만으로도 무척 기뻐했어.

나는 이제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 한 발은 주님 편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놓고 계속 생활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감독님과 접견을 하기 시작했어. 감독님은 내가 속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 회개라는 긴 과정이 따랐고, 때로는 그 길이 힘들기도 했어. 여전히 나는 회개하는 중이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행복해졌어. 교회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걸 나는 알아. 옳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느낀 것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행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익명

의로운 결정을 굳게 지켜

열마 전에 너와 같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친구가 있어. 내 친구 사라*는 교회와 복음 진리에 대해 늘 강한 간증이 있었어. 그리고 사라와 나는 어려서부터 성전 결혼을 하겠다는 소망이 아주 컸어.

열일곱 살인가 열여덟 살쯤 되었을 때 사라는 한 남자아이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 그 남자애는 성격도 좋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아이였지. 그런데 회원은 아니었어. 그래도 데이트 초기에는 그제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였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 남자아이와 결혼하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준을 세우지는 않지만, 표준을 가르치고 지키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그 표준은 혼전 순결과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견상 현대 사회 표준과 모순되고, 아무리 표준이 하찮게 보이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현재 교회에는 여러분과 같은 수백만의 청소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학교나 직장에 있을 때, 놀고 있을 때나 군대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25~26쪽.

생각하기 시작했어.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지. ‘잘 될 수도 있어. 어쩌면 타협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가 변할지도 몰라. 그래, 그 애를 복음으로 데려올 수도 있을 거야.’

사라는 많은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했어. 사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제나 성전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남자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어. 마침내 사라는 그 남자애와 헤어졌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라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사라는 주님을 신뢰했지.

2007년 봄에 사라는 멋진 청년과 결혼했어. 그들은 이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서로 인봉되었어. 사라는 자신이 사랑하고 성전에서 함께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던 일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알 때까지 기도해 봐.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해봐. 나는 사라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내 경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배웠어.

아나 린드그렌, 스웨덴

* 가명
주

1. Neal A. Maxwell, “Why Not Now?” *Ensign*, 1974년 11월호, 13쪽.



해답을 찾아서

교회는 왜 그렇게 봉사를 강조하나요? 그냥 재미있게 놀면 안 되나요?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이웃을 돕는 데 역점을 둡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가 맡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부름에서 봉사하거나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¹

더욱이 올바른 태도로 참여한다면 봉사는 매우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을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그 재능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며,

올바른 태도로 참여한다면 봉사는 매우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제 일회장단의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920~2007)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축복사의 축복은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 축복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성숙할 때 누릴 수 있는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른 축복들과 마찬가지로 축복사의 축복도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면 먼저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접견 일정을 잡아야 한다. 그 접견에서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은 여러분의 준비성과 합당성을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이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추천서가 발부된다. 그러면 스테이크 축복사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는다.

주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Your Patriarchal Blessing”, *Tambuli*, 1983년 6월호, 30쪽.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그리고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니라.” (모사이야서 2:17)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입니다.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친구들과 함께 봉사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새롭고 독창적인 봉사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봉사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면 정말로 놀랄 것입니다.

주
1.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6쪽 참조.

사진 상하: 매튜 라이어, 노벨 밀라크, 존 루크; 노 민 저를 교자시는 예수, 워런리히, 블로소, 덴마크, 엘베르외드 프레데릭스보르에 있는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



개척자의 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회 전체가 이 날을 경축하나요?

개척자의 날은 1847년 7월 24일에 첫 번째 몰몬 개척자 부대가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한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타 주에서는 이날이 주 공식 휴일이며, Days of '47(1847년 기념일)이라는 명칭으로 시가행진 등 축하 행사를 합니다. 이날은 종교나 배경에 관계없이 유타 주를 건립하는 데 공헌한 모든 이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주하는 후기 성도들은 다 함께 공유하는 개척자의 유산에 감사를 표할 수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7월 24일은 초기 후기 성도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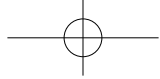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있습니다. 어떤 지역 사회에서는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야외극, 시가행진, 음악회, 손수레 여행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야외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날을 떠올리며 숙고하는 등 간단하게 기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지, 공식 축전이 있든지, 아니면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내는 정도이든지에 상관없이 이날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교회를 강화한 지역 개척자를 포함하여 초기 후기 성도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한 일을 기념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양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분야와 환경에서 개척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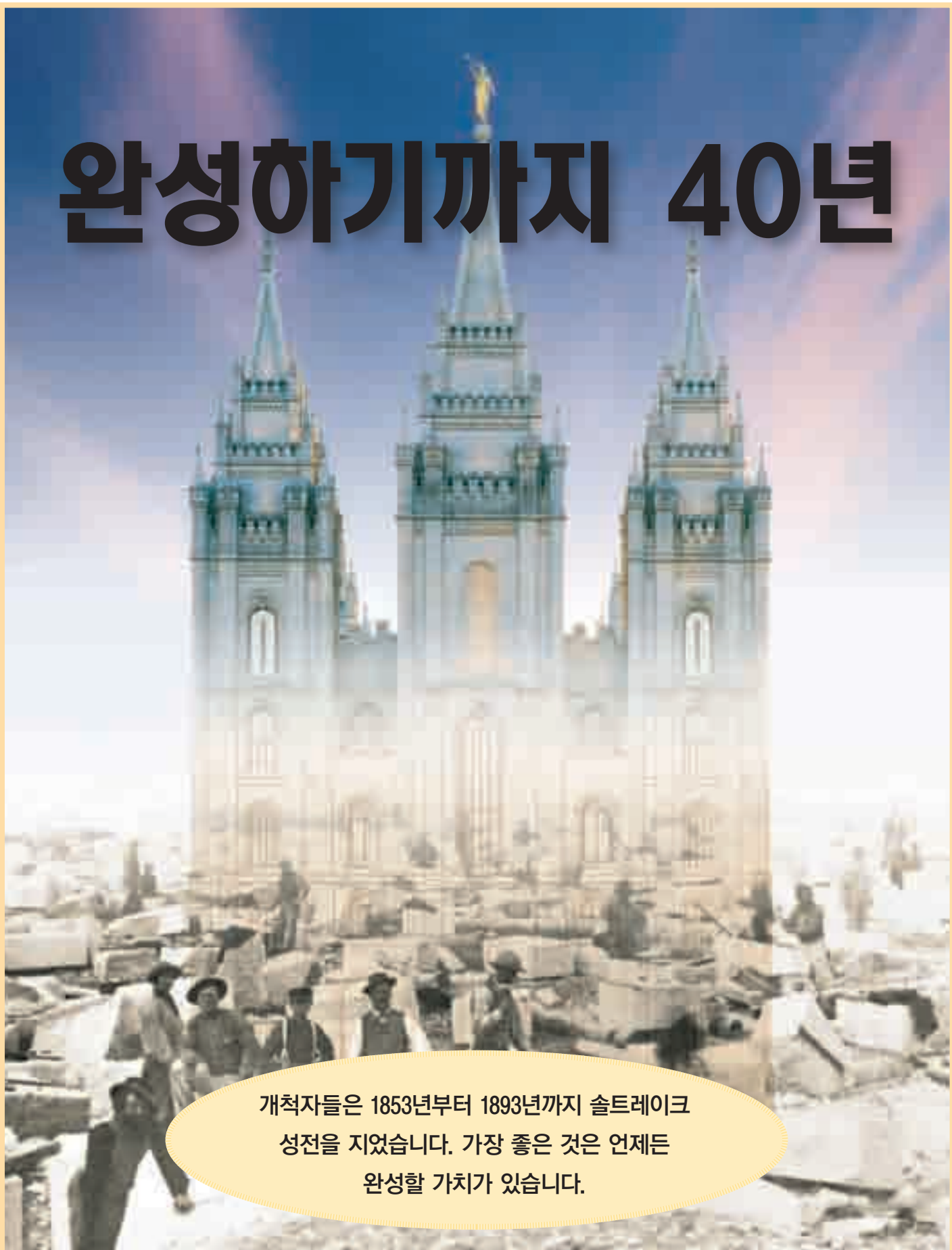
여러분은 어떤 개척자 이야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나요? liahona@ldschurch.org로 알려주세요.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임”, *리아호나*, 2008년 7월호, 3쪽.





완성하기까지 40년



개척자들은 1853년부터 1893년까지 솔트레이크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언젠든 완성할 가치가 있습니다.

왼쪽 합성사진 상화: 스킵트 웰터; 건축 그림: 트루만 오스본 안젤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건축 인부 사진: 찰스 앨리엄 커터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우리들 공간



개척자들을 기념하며

해마다 7월이 되면 교회 회원들은 사는 곳이 어디이든 떠나없이 1847년 7월 24일에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한 개척자들을 기념한다. 한 청년은 그 일에 동참하며 겪은 일을 이렇게 말했다.

“가끔 와드에서 개척자 활동을 해요.” 미국 버지니아 주 버크에 사는 아날레 비는 말한다. “회원들은 개척자 복장을 하고 개척자 ‘여행’을 떠나죠. 실제로 길을 걸어가요.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개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척자들이 했을 활동도 해 보죠. 버지니아 주는 여름에 정말로 무덥고 습기가 많지만 늘 야외에서 이런 기념 활동을 해요. 뜨거운 날씨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개척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언제나 교회 역사에 관한 책을 읽어요. 책을 읽다 보면 개척자들에게 더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분들이 겪었던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과거나 현재 교회 개척자들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척자라는 점을 기억하자.



내가 좋아하는 성구

니파이후서 32장 5절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해 온 구절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께서 알려 주신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고 나서는 성신이 함께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신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피치스 시, 16세,
서인도제도 트리니다드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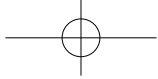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교리와 성약 59:18)

간증을 얻는 방법

교회 회원들의 삶에서 간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증을 얻으려면 모로나이가 권고한 대로 해야 합니다. 즉, 참된지 알고 싶은 내용이나 원리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참된 지 여쭙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따르고 신앙으로 구하는 사람은 성신의 권능에 힘입어서 진리를 간증으로 얻게 됩니다.(모로나이사서 10:3~5 참조) 마음속으로 신앙을 다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구도자였을 때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이 모두 참된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여쭙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을 표현할 말을 이생에서는 찾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응답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르디 알, 20세,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지식이 자라

소니아 파달라-로메로



복음 교리를 배우면서 내 힘든
처지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더 행복해졌다.

열 네 살 때였다.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얼마 후, 침례 권유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거절하셨지만 나는 받겠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진정으로
개종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십대들이
흔히 그렇듯이 나도 그저 뭔가 색다른 것을
찾았던 것 같다.

침례를 받고, 이듬해에는 혼자서 교회에
갔다. 교회가 나와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았고, 또한 나도 교회 가르침을 그다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활동 회원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며
멕시코시티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처음 그 학교를
찾아갔을 때에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입학 허가를 받고(부모님에게 이
학교에 다녀도 좋다는 승낙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금세 깨닫게
되었다. 여전히 간증이 없었고, 조셉
스미스가 어떤 사람인지, 몰몬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정말이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물론 그런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다. 이 학교에 다니는
걸 허락 받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던가?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걸 어떻게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 끙끙대기만 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는 소식을
듣자 내 상황은 더 나빠졌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사진 제공: 소니아 파달라-로메로. 재림 그림의 부분 확대. 그랜트 윌슨 클로스



그때, 감독님이 나를 부르셨다. 감독님은 내게 어떻게 지내냐며 말을 건네셨다. 나는 내 좌절감과 슬픔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선한 감독님은 내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으로 대화하는지부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속죄도 이야기했다. 감독님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고, 나는 처음으로 내게 간증이 있음을 느꼈다. 허우적거리던 그 시기에 불잡을 게 있어서 기뻐다. 가족을 돕기에는 내 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면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모든 게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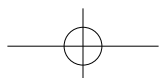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이 나처럼 교회가 자신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나는 곧바로 복음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에 목적과 계획을 두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다. 구주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신다는 점을 아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교리를 알게 되자 나머지는 모두 제자리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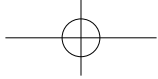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새로운 회원으로서 나는 곧바로 복음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에 목적과 계획을 두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다.

감독님의 사랑과 끈기 있는 가르침 덕분에 나는 고등학교 시절을 무사히 보냈다. 교회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나는 졸업을 하고서도 멕시코시티에 계속 머물렀다. 살 곳을 정한 후에 맨 먼저 나는 그 지역에 있는 와드를 찾았다. 그건 내가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피난처에 계속 머물렀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내 인생이 요동치던 시기에 굳건한 지지대가 되어 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큰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이 교회 회원이 된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분께서는 나를 위한 계획을 펼쳐 보이신다. 그걸 지켜보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철십인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하고 다정다감하셨던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절, 당시 열 살 난 소년이었던 아버지는 지금 폴란드 영토인 스테틴이라는 곳에서 친구에게서 복음을 소개 받으셨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스테틴에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후에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개종했습니다. 후에 아버지는 같은 동독에 사시던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선교사가 없었기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은 결혼하셨고, 제가 태어나기 직전 서독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교회 회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이 교회가 그분의 참된 교회라는 강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간증을 잘 간직했기에 저는 청소년 시절에도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때 교회에는 활동적인 또래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둘은 친형제였는데 우리는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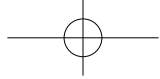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2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시간은 일요일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권회와 청년 활동에서 만났는데, 한 주에 한번만 보았어도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이는 저희 셋 모두가 교회에 활동적으로 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형과 누나들이 저활동 되는 모습을 보았고, 저도 그렇게 간증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지역 교회에는 청소년이 몇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활동이 되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님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종교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겠다고 마음을 비우셨지만, 점차 이런 염려를 하게 되셨습니다. '에릭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네 살 때, 하루는 교회 모임을 마친 후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청소년 중 몇몇이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물한 살까지는 저를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려가 주셨으면 해요. 그 이후는 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육과 관련된 결심

결국 부모님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열 살 난 소년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입니다. 독일에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진로를



어릴 때 결정합니다. 당시 고등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를 다니던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부모님은 저를 그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학교는 갈 수 있어도 김나지움(대학교 진학 준비 학교) 학교는 안 되겠구나. 세상 때문에 너를 잃고 싶지는 않구나.”

부모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으로 저는 기초 교육을 마친 후에 직업 교육을 받고, 결국 실무 관련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열여덟 살에 교육을 마친 저는 독일 뮌헨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은 참으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이미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귀환하고 2년 후, 저는 지금 제 아내인 크리스천과 결혼했고, 더 이상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저런 제약 때문에 부모님께서 일찍이 내리신 결정에 저는 상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든지, 그건 날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그 일로 내가 불리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그 결정이 제게 불이익을 준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보험 업계에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후에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저는 마음 속에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저는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교회 교육 기구 교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 제 직업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들께서 하시는 권고를 따를 때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신다고 믿을 때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으려 했던 제 강렬한 소망과 저를 보호하려 하셨던 부모님의 강렬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찾기

어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모로나이서 7장 19절에서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지런히 탐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할지니, 만일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정말로 훌륭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양심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받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끊임 없이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붙잡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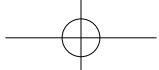


말이 되고, 더 좋은 친구가 되며, 더 훌륭한 직원이 되고, 더 나은 선교사,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데살로니가전서 5:21)

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선한 건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저건 아니야.” 그들은 진리에서 자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경전은 우리가 선한 모든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양심을 구하도록 권합니다.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칠십인

한다면 그들이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예언된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은 아들과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서 교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전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세요.” 저는 마치 제가 니파이나 힐라맨, 혹은 모로나이가 된 것처럼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하나가 되어 지금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귀중한 교육

청소년 시기에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동기는 1972년에 독일에서 시작된 세미나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열네 살이었습니다. 세미나리는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깊은 감명을 주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셨던 세미나리 교사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저는 세미나리와 개인 경전 공부를 통해 경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자 간증은 강해졌습니다. 저는 늘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새벽반 세미나리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반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세미나리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매일 아침마다 참석했습니다. 꽤 먼 거리를 와야 했던 몇몇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세미나리에 함께했던 모든 청년이 선교 사업을 했고 거의 모든 청년 청년가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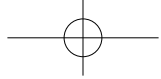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제가 어떻게 간증을 얻었으며, 무엇이 가장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때, 저는 주저 없이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수업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존경하는 선생님에게서 경전에 담긴 복음 원리와 교리를 여러 친구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종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세요.” 저는 마치 제가 니파이나 힐라맨, 혹은 모로나이가 된 것처럼 상상하며 경전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읽으니 경전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꿈과 같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전 속 인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전은 신앙이 실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전 내용을 단지 이론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앙을 매개로 주님께서 실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가서…… 행[하러]”(니파이전서 3:7) 할 때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엘머서 46:20. 암으로 나이오라, 헬타,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경전에서 얻는 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은 어린 시절에 제게 참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젊은 시절에 저는 “주님께서 무언가 명하시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제가 업무 훈련을 받던 어느 날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쳐야 할 우편 작업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일은 저와 동료들이 함께 해도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한 시간 정도가 더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모임에 참석하려면 함부르크에서 5시 30분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한 번 해 봐! 절대 불가능할 테니.”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중요한 모임이니까.” 동료들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구 말고. 그 훌륭한 신앙으로 한 번 해 보라고. 신앙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우편 작업을 5시 10분 전에 마쳐야 해.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지.” 저는 그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 두고 봐야겠지. 하지만 나는 오늘 밤 제 시간에 함부르크에 가야 해.”

자, 믿기지 않겠지만 3년 동안 처음이자 유일하게 그날 모든 일이 5시 10분 전에 끝났고 저는 제 시간에 기차를 탔습니다.

이 일로 동료들은 좋은 느낌을 받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무언가 명하실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신기하게도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데 대한 전적인 확신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우편 작업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항상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해요.” 하고 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믿는 신앙과 확신이 있으면 모두 잘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경전 공부와 부모님의 모범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상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훌륭한 신앙을 키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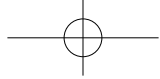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선교 사업이 길을 밝혀 줄 것입니다

청남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 신체적, 학문적으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수업에서 도움을 받아 매일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선교 사업을 나가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선교사로서 하는 경험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배움의 시간이라는 점을 깨달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서 배운 훌륭한 모든 것을 실천해 볼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열망하는 청년 청년 여러분은 잘 준비된 가운데 선교 사업을 나갈 것입니다. 선교 사업은 여러분의 삶을 밝혀 줄 것입니다. 교회 청소년인 제 아들 딸들과 여러분이 나이가 찼을 때 선교 사업을 나가기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자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는 큰 신앙과 확신을 갖고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유익한 경험과 도전,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큰 신앙과 확신이 있다면 그분께서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강한 간증이 있습니다.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 칠십인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영원한 가족

처음 우안시 키발루를 만났을 때, 그녀는 얼굴에서 환한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심각해졌고, 과연 이 열여섯 살 난 청녀가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을지 궁금했다. “성전 이야기를 하려고요.” 우안시가 말했다.

우안시는 통가에 산다. 통가는 높이 솟은 야자수와 장대한 바나나 나무, 잎이 넓은 타로토란이 우거진 섬나라이다. 그 섬에서 본 청소년들은 대부분 삶에 만족한 듯 했으며, 늘 우안시의 얼굴에서 보았던 환한 웃음이 있었다. 우안시 또래인 통가 청소년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네트볼(웁긴이: 영국에서 유래된 농구와 비슷한 구기종목) 하는 걸 좋아하며, 가족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어느 면으로 보나 그들은 행복한 청소년들이다. 하지만 우안시의 진지함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배어 있어 놀라웠다.

“성전에 대해 말하려고요.” 우안시가 다시 말을 꺼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언니, 오빠, 동생들이 모두 교회 회원이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엄마와 함께 교회에 참석했죠. 저는 성전을 아주 좋아했고, 청소년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걸 좋아했어요. 성전에 가면 언제나 영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교회에 나오려고

우안시 가족이
마침내 성전에
가게 된 일은
비극처럼 보이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우안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말을 받아 적다가 우안시를 살짝 올려다보았는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루는 남동생 알레키시오가 엉덩이에 상처를 입고는 병균에 감염되었어요.” 우안시가 말을 이었다. “한동안은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빠도 교회에 나오셨죠. 하지만 아빠는 다시 교회에서 멀어지셨어요.”

우안시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건넨 휴지는 이내 흠뻑 젖었고 눈물을 닦으려다 소매도 젖고 말았다.

“동생은 상태가 악화되어 끝내는 죽고 말았어요. 겨우 열두 살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예요.”

감정에 북받친 우안시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우안시가 왜 그리 진지했는지 이해가 갔다. 이 어린 청녀는 벌써 인생에서 큰 비극을 경험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안시의 두 눈에 어렴풋이 희망의 빛이 비쳤다.

우안시가 말을 이었다. “그 일이 있는 후에 아빠는 마침내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감독님과 지도자들, 친척들과 가족들이 아빠를 격려했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고 남동생을 다시 만날 방법은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뿐이라고 모두 말해



가족 사진: 조슈아 제이 퍼키,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 사진: 웨민 시엔다순



성전에서 느끼는 평화

“합당하여 성전에 갈 수 있는 분들께 저는 자주 성전에 가도록 권고드립니다. 성전은 여러분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복음에 다시 새롭게 헌신하고 계명을 지키려는 더 굳은 의지가 생깁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3쪽.

주었죠.”

“저희는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우안시가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노력하셨고 의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 가족은 2008년 10월 10일에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어요. 알레키시오가 죽은 지 정확히 1년 된 날이죠. 감독님께서 동생 대신 의식에 참석하셨어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우안시가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나타내는 눈물이었다. 우안시 가족은 주님의 집으로 가서 인봉을 받았다. 우안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했다. 성약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안시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우안시에 대해 생각하자, 우안시가 성전 근처에 있는 교회 운영 고등학교인 리아호나 교정을 걷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교정을 거닐면서 햇빛 속에 반짝이는 금빛 모로나이 상을 바라보는 우안시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안시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히지만 눈물 뒤로 웃음이 번져 나온다. 우안시는 알레키시오를 다시 보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



“안 돼!” 하고 말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마시는 만큼, 보라, 이는 좋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니”(교리와 성약 89:5)

트루먼 이 벤슨
실화에 근거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체이스는 못하는 일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높은 현관 계단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면 멀리뛰기 하는 것처럼 도움닫기까지 하면서 뛰어내리는 친구이다.

360도로 회전하는 롤러코스터를 타 보라고 했을 때에는 맨 앞 좌석에 앉아서 탔다.

학교에서 가장 예쁜 줄리아에게는 절대로 말을 걸지 못할 거라고 말하자, 체이스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앉아 5분 동안 이야기까지 나누었다.

그래서 나는 체이스는 못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다.

체이스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놀러 온다. 우리 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산다. 우리 집에서 집 한 채만 지나면 바로 체이스네 집이다. 하지만 체이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에는 오지 않는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고 월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활동에 두어 번 초대를 받았다. 초콜릿 케이크를 함께 먹으며 놀기도 했다.

정말 재미있었다.

보통, 학교가 끝나면 체이스는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논다. 엄마 아빠가 아직 직장에 계실 시간이라 체이스와 함께 놀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좋다. 체이스와 놀면 재미있다. 서로 장난도 친다. 체이스는 모든 아이들과도 친구이다. 체이스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걸 들어 본 적도 없다.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도 말이다.

오늘 나는 체이스와 함께 농구를 했다. 날씨가 무척 더워서 체이스에게 음료수를 마시겠냐고 물었다.

“응, 마실래.” 체이스는 잔디에 공을 굴러놓고 현관 쪽으로 달려왔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에 갔다. 냉장고를 열자 찬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러자 팔에 난 털들이 곤두섰다. 냉장고를 살짝 들여다 보니 주스와 우유뿐이었다.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 뚜껑을 따 놓은 깡통이 눈에 들어왔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 지혜의 말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01년), 36쪽.

아빠가 맥주 뚜껑을 딴 채로 그냥 두신 것이다. 우리가 한두 모금 마셔도 아빠는 절대로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맥주 깡통을 꺼냈다.

“마셔 볼래?” 내가 물었다.

“그게 뭘데?” 체이스가 물었다.

“맥주야.” 내가 말했다. “아빠는 언제나 맥주를 마셔. 우리가 한 모금 마셔도 아빠는 모르실 걸!”

체이스는 나를 바라보았다. 체이스는 눈썹을 치켜 세우더니 두 손을 엉덩이 뒤로 갖다 댔다. 그러더니 체이스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본 말이 들려왔다.

“안 돼!” 체이스가 대답했다.

“지금 안 돼라고 말했니?” 내가 물었다.

“맥주는 몸에 좋지 않아.” 체이스가 말했다. “맥주는 마시면 안 돼.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거든.”

“한 모금만 마시는데 뭘 그래.” 내가 대답했다. “자 보라구. 내가 보여 줄 테니.”

나는 깡통을 입에 대고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는 씩 웃어 보였다. 맛이 고약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표정을 짓고 싶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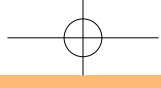
“봤지? 내가 멍청해진 것 같니?” 내가 물었다.

“집에 가야겠어.” 체이스가 말했다. “다시는 그런 거 마시지 마. 안 좋은 거야.”

체이스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인도를 지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다른 일은 다 하면서 대체 왜 맥주는 조금도 안 마시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체이스가 집으로 간 후에 한 모금을 더 마셨다. ‘우웬! 정말 역겨운 맛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맥주 깡통을 냉장고 구석에 다시 넣어 두었다.

어쩌면 체이스 말이 맞지도 모른다. ■



“그들은 잇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니파이전서 21:15)

길을 찾아 가게

안네-메트 하울랜드
실화에 근거

열 살 때, 우리 가족은 덴마크에서 캐나다로 이주했다.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우리 집 건너편에 살던 두 자매가 나와 열두 살 된 오빠 포울에게 함께 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을 가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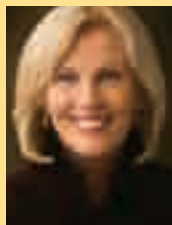
오빠와 나는 기대에 부풀었다. 어머니는 내켜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승낙하셨다. 어머니는 두 자매에게 우리 버스비를 맡기셨다. 그리고는 오빠와 내가 아직 영어를 못하니 우리를 잘 돌봐 달라고 부탁하셨다. 두 자매는 우리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다 같이 버스에 올라 시내로 향했다. 잠시 후 버스가 서자 두 아이는 우리에게 내리라고 손짓했다. 다 같이 시내를 거니는 동안 우리는 두 아이를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아이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도 쫓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낫선 모퉁이 근처에서 사라져 버렸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곧 돌아오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이제 우리 힘으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까?” 오빠에게 물었다.

“우린 영어를 못하잖아. 그리고 집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인도 받으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트, *본부 청년 회장, “믿으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10쪽.

주소도 몰라.” 오빠가 말했다.

“어머니께 전화하자.” 내가 근처 공중전화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돈도 없고 집 전화번호도 모르잖아.” 오빠가 대답했다.

나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오빠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침착해야 돼, 안네-메트. 같이 기도하자.”

우리는 붙어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오빠는 길 아래쪽을 가리켰다.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오빠가 말했다.

나는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도대체 오빠가 어떻게 안단 말일까?

오빠는 다시 한 번 나를 달랬다. “우리가 인도받을 거라는 신앙을 가져야 해.” 오빠가 말했다.

그 말을 듣자 평화로운 느낌이 몰려와 나를 감쌌다. 신앙으로, 오빠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연못이 나왔다. “이 연못 기억해?” 오빠가 물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갈 때 이 연못을 지나갔잖아!”

오빠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연못가에 앉아 다시 기도했다.

갑자기 오빠가 먼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저거 보여?” 하고 소리쳤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기 시작했다. 나도 벌떡 일어나 오빠를 따라갔다.

“뭐가 보이는데?” 내가 소리쳤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빨래방 간판이야!”

우리는 간판을 따라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으로 갔고, 이내 집 밖에 서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심화: 샘 벨리니; 사진 촬영: © BUSATH PHOTOGRAPHY



달려가서 어머니를 껴안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두 아이가 집으로 오는 걸 보고 그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지. 그 아이들 어머니는 별로 상냥하지 않았어. 우린 외국인이니 우리 나라로 돌아가 버리라고 말하더구나.”

어머니는 오빠와 나를 감싸 안으셨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란다. 우릴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구가 되어 줄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 아이들은 오늘 너희를 홀로 남겨 두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너희를 홀로 남겨 두지 않으셔. 너희가 그걸 기억해서 기쁘구나.”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



선지자의 약속

18 48년 봄, 제 고조부모,
찰스 스투어트 밀러와
메리 맥고완 밀러는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떠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로 여행했으며,
1849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세인트루이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전염병인
콜레라가 그 지역을
휩쓸었는데, 그만 2주 만에
가족 중 네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열세 살이었던 제 증조할머니
마가렛을 포함하여 남겨진
자녀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밀러 자녀들 아홉 명은 부모
형제들이 끝내지 못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일을 하고, 저축했습니다. 그들은
1850년 봄에 황소 네 마리와 마차 한 대를
마련하여 세인트루이스를 떠났고, 그 해에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다른 조상들도 비슷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간증은 굳건했으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특성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서서는 참으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예수는
그분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 일을
그분의 뜻과 영감에 따라 인도하는 데 제
삶과 힘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0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신앙을 유산으로

유산이란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중한 선물입니다. 몬슨 회장의
고조부모님인 찰스 밀러와 메리 밀러는 몬슨
회장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몬슨
회장님 가족 이야기에 나온 단어를 빈 칸에
채워 넣으세요.

밀러 가족은 _____
에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여정을 마칠 돈을 벌기 위해
세인트 _____ 에서 일했다.
많은 사람들이 _____ 인
_____ 로 목숨을 잃었다.
부모님과 두 형제가 세상을 떠났지만 밀러
자녀들 _____ 명은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에게는 황소 _____ 마리와 마차
_____ 대가 있었다.
몬슨 회장의 증조할머니인 마가렛은
당시 _____ 살이었다.
그들은 _____ 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솔트레이크 _____ 로 갔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제 _____ 과
힘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날의 개척자

개척자란 처음으로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길을 보여 주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나 가족 중에 오늘날의 개척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손수레 끌며 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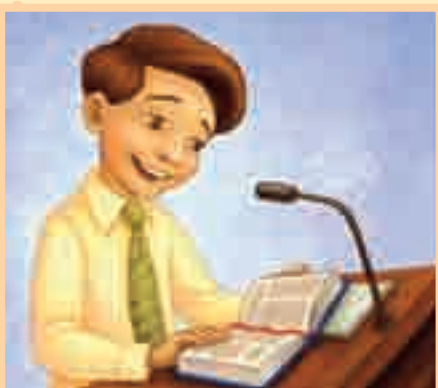
가족 남기고



수천 마일을 걸어가는
서부 개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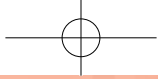
불타는 신앙 있어



두렵 이기고



의 위해 전진하는 우리
서부 개척자
(“개척자”, 어린이 노래책, 138~139쪽)



함께 나누는 시간



© 2010 PROVERBOCC/TECNOLOGIA MOON/판권등록: 이리다 # 9773



_____ 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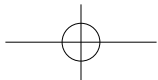
친형제자매가 _____ 을/를 도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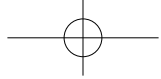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_____ 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_____ 을/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어요

산드라 테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옆 장에 있는 그림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격려해 주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며 가르치기 위해 어린이들을 주위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시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행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마침내 그곳을 지나던 사마리아인이 이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붕대로 감싸고 이 사람을 주막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하며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돕는 데 필요한 돈을 주었습니다.(누가복음 10:30~37 참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 7월 경전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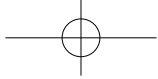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누가복음 18장 22절을 읽는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외운다.
 다음 활동 중 하나를 하거나 여러분이 준비한 활동을 한다.

- 다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22절을 외우도록 돕는다.
- 64쪽에 있는 활동을 한다. 발자국을 잘라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무슨 일을 했다면 그 내용을 빈칸에 적고 발자국을 길에 붙인다.
- 장애가 있거나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준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이 한 일들은 이 성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한 활동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

원작: 위메사부터: 그리스도 이미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재판: 그리스도와 아이들 해리 헨더슨, © IR: "경사됩니다"라고 말한 나병환자, 존 스틸, 복사 권리: 신원 사마리아인, 윌터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 재판: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 GARY L. KAPP, 복사 권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 SIMON DEWEY, 오른쪽: 심화, 제임스 존슨



개척자 양산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뎌요”(모로나아서 7:47)

말리 워커
실화에 근거

“사라, 사라, 일어나!” 다섯 살 난 크리스티나 라슨이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떠날 시간이야.”

이제 세 살 된 사라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밖이 어두운걸.” 사라는 졸린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엄마가 그러셨어. 미국으로 가는 배가 곧 떠난대.”

덴마크에 사는 크리스티나와 사라의 가족은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은 솔트레이크 밸리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기나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사라가 옷 입을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두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늑한 자기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긴 시간이 지나야 진짜 침대에서 다시 잠을 잘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라, 네 양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크리스티나는 레이스가 달린 자기의 비단 양산을 집어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양산을 이불이랑 같이 쌀 거라고 하셨어.”

엄마와 아빠는 미국으로 갈 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불이랑 옷, 연장을 꾸리면 다른 물건을 넣을 공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나와 사라의 애지중지 아끼는 물건을 단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가게 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인형과 책과 장난감은 두고 가고, 예쁜 양산 하나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자 크리스티나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친구와 친척과 집을 두고 떠나야 했지만 시운으로 가게 되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바다 여행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면 두 아이는 배 위에서 나란히 예쁜 양산을 펴 머리 위로 해를 가렸습니다. 바람이 앞쪽으로 불면 배는 앞으로 쪽쪽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반대로 불면 배는 종종 온 만큼 도로 밀려났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크리스티나의 가족은 황소가 끄는 마차를 사서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가는 긴 여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차에 타면 덜컹거리고 너무 더워서 이따금 크리스티나와 사라는 걷기도 했습니다.

다른 많은 개척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스티나의 가족도 여행길에서 힘들고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길에서 태어난 크리스티나의 남동생은 목숨을 잃고 넓은 들판에 묻혔습니다.

1857년, 드디어 크리스티나와 사라의 가족이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곳에서 포레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일요일마다 크리스티나와 사라는 각자 양산을 쓰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양산을 쓰면 사막 위로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몇 주일이 흘렀습니다. 크리스티나의 가족은 돈과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크리스티나는 부모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곡식을 많이 수확한 가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그 값으로 뭔가를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그럴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크리스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양산이 있잖아요. 사라 거랑 제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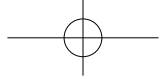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하지만 크리스티나, 너희들이 아끼는 물건이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단다!”

“괜찮아요, 아빠. 양산보다 음식이 더 필요한걸요.” 하고 크리스티나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티나의 아빠는 레이스가



출처: 크리스티나 라슨



달린 예쁜 양산을 밀가루와 바꾸셨습니다. 그 밀가루로 크리스티나의 가족은 다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티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그 예쁜 양산을 놓아 두던 한쪽 벽 구석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식사로 맛있게 먹은 빵을 떠올리자 슬픔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쁜 양산 덕분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희 생은 복음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간, 재능, 정력, 세상적인 재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당신은 성도입니까?”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6쪽.

우리들 이야기



베아트리즈 다 에스, 10세, 브라질

어렸을 때, 어머니는 자주 저를 침례식에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막상 제가 침례 받을 나이가 되자 몹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지켜본 사람들과는 달리 제 침례 의식에 제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성신께서 도와주었습니다. "걱정 마, 걱정 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성신은 제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침례는 제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 더 이상 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라이언 케이, 9세, 대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세요

첫 학기에 본 말레이어 시험을 망치고 반 등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속상했지만 모든 게 제 탓이란 걸 알았습니다. 방과 후 숙제나 공부를 하는 대신 친구들과 노는 데 시간을 써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성적을 올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매일 야단법석을 떨지 않고 숙제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2학기 시험을 잘 치르도록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치기 한 주 전에 어머니는 제가 작문 시험에 대비해 특정 주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선생님이 정한 주제에 따라 얼마나 작문을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치는 날, 선생님께서 정하신 주제가 제가 준비해 온 주제란 걸 알고 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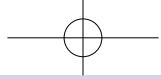
놀랐습니다. 이 주제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힘 없이 적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월등하게 향상된 제 실력에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영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에단 디, 11세, 말레이시아





지노 에이, 6세, 필리핀



멕시코에 사는 세 살 난 멜라니 에이는 엄마를 도와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치우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제 어엿한 세 살이기에 멜라니는 일요일 모임이 끝난 후 다른 사람들이 의자를 쌓을 수 있도록 의자를 접으며 교회 일도 돕습니다. 멜라니는 몬슨 회장님을 사랑하며 연차 대회 기간에 텔레비전으로 회장님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코스타리카에 사는 아홉 살 난 에드윈 엠은 노래에 소질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기도"를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드윈은 수영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욕설을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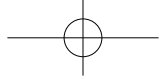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침대에 누워 있으면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부들부들 몸이 떨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무섭거나 슬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도와주십니다.

레아 엠, 9세, 독일

우 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간증 또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쓴 후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원고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나이,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세요.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어린이 노래책, 37쪽)

예수님이 누구데?

엘리아나 오스본

실화에 근거

1. “조심해! 알로사우루스가 잡으러 간다!” 테디는 소파 주변에서 공룡 알로사우루스를 가지고 코울의 공룡을 쫓아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 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고.” 코울은 자기 공룡으로 벽 위를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2. 소년들은 엄마가 간식을 가져올 때까지 굶주린 공룡처럼 시끄럽게 소리치며 온 집안을 쿵쿵쿵 돌아다녔습니다.



3. “저기 벽에 걸려 있는 사람 누구니?” 테디가 길쭉한 치즈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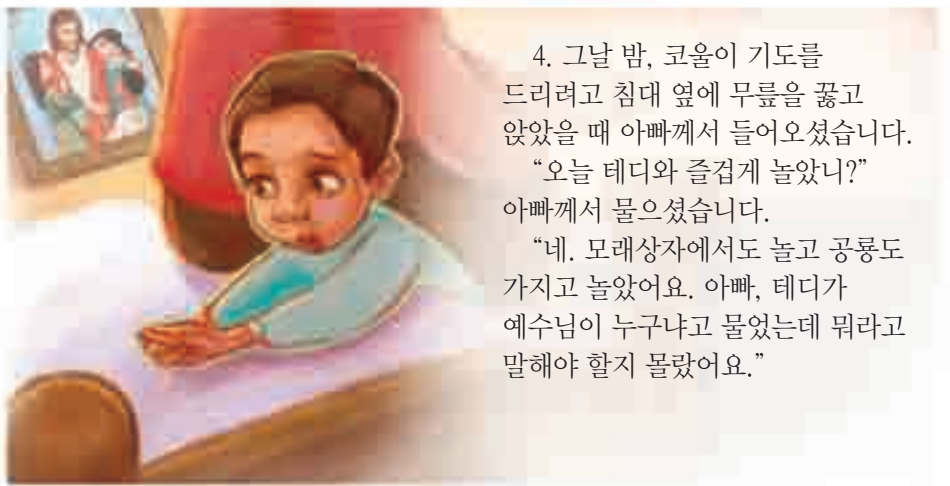
“당연히 예수님이지.” 하고 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데?” 테디가 물었습니다.

코울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서 살고 계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코울은 그 말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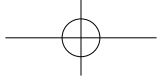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그렇구나.” 테디가 말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까?”



4. 그날 밤, 코울이 기도를 드리려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아빠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테디와 즐겁게 놀았니?” 아빠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모래상자에서도 놀고 공룡도 가지고 놀았어요. 아빠, 테디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5. 아빠는 코울의 방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아빠께서 물으셨습니다.



7. “그런 점을 테디에게 말해 주면 되겠구나.”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테디가 저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코울이 말했습니다. “그럼 테디는 예수님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는 건 재미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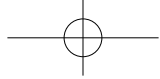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6. “언젠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셨다는 이야기도 기억나요.” 코울이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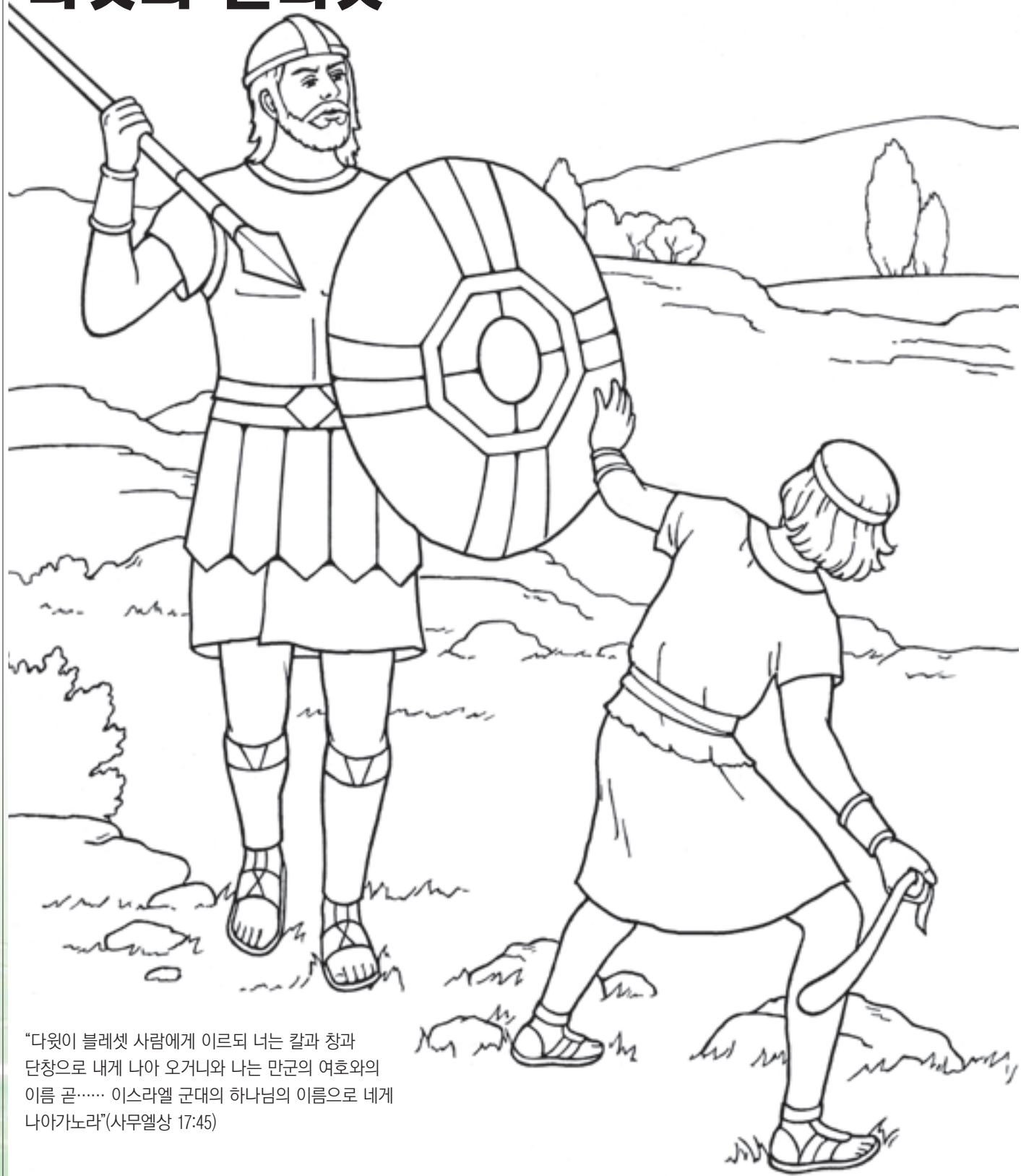
8. 아빠는 코울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코울, 참 착하기도 하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서는 널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야. 테디는 너 같은 친구를 뒤서 참 좋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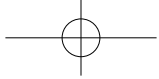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심화: 제니퍼 톨만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사무엘상 1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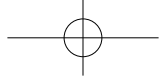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개척자 길여행

아리에 반 데 그라프

개척자들이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드려 볼까요?





교회 소식

중요한 역할을 배운 주일학교 회장단

로렌 앨런
교회 잡지

매 주 일요일 유타 하이랜드 제30와드 주일학교 회장인 리차드 크리스천슨과 그 보좌들은 거의 모든 교회 단위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을 보낸다. 이 주일학교 회장단은 각 반에 교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복도에 나와 있는 반원들이 공과반으로 들어가도록 돕는다.

그러나 크리스천슨 형제는 자신이 맡은 책임이 반원들을 모으고 종을 올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한다.

각 정원회와 보조 조직이 해야 할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구원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복음 원리를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이러한 책임을 맡은 보조 조직과 신권 지도자들을 보조하는 일이 바로 주일학교 회장단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 역할이란 크리스천슨 형제와 보좌들처럼 와드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 러셀 티 오스구토프 형제는 말한다.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회원들을 강화하고 회복에 대한 간증을 굳건하게 하며 구원과 승영을 얻도록 돕는 주요 수단입니다.”

와드 주일학교 회장으로서

크리스천슨 형제는 부모와 지도자, 교사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더 훌륭하게 가르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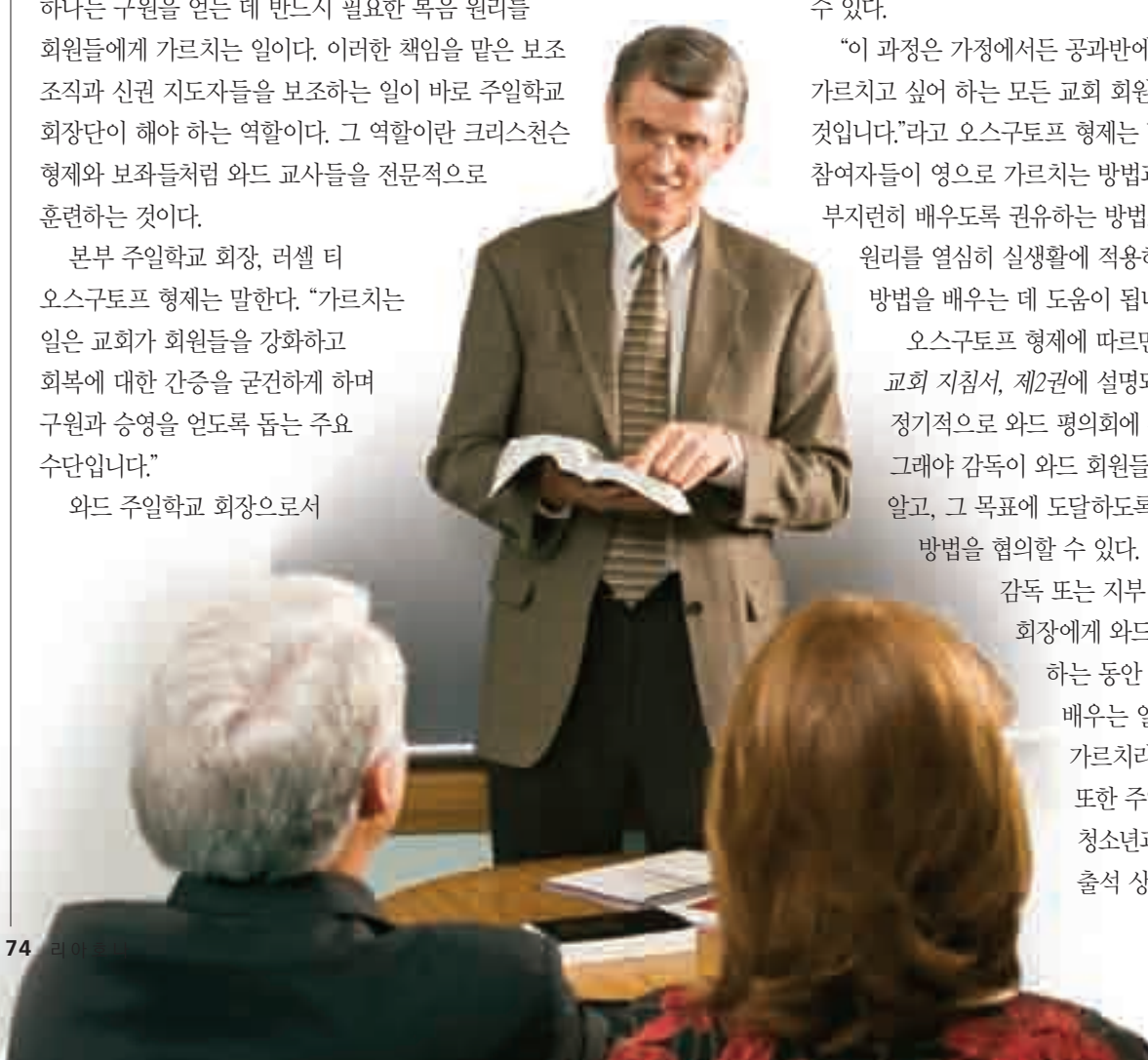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사람들이 배우는 일에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다.”라고 크리스천슨 형제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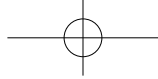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주일학교 회장단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는 교사 향상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일학교 시간에 할 수도 있다. 교사 향상 과정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교재에 나오는 12개 공과로 구성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주일학교 회장단 중 일원이 가르칠 수 있다.

“이 과정은 가정에서든 공과반에서든 더 훌륭하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라고 오스구토프 형제는 말한다.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영으로 가르치는 방법과 활발하게 참여하고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하는 방법, 회원들이 복음 원리를 열심히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스구토프 형제에 따르면 주일학교 회장은 교회 지침서, 제2권에 설명되어 있듯이 정기적으로 와드 평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래야 감독이 와드 회원들에 대해 세운 목표를 알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교수법을 향상시킬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은 주일학교 회장에게 와드 또는 지부 평의회를 하는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한 원리를 가르치라고 권유할 수 있다. 또한 주일학교 회장은 청소년과 성인 주일학교반 출석 상황을 보고하고, 와드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돕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오스구토프 형제는 말한다.

“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충실한 부모가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고 그 원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보조 조직은 이러한 가장 성스러운 의무가 가정에서 잘 이행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일학교 회장단은 부모와 교사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돕는 와드 자원입니다.”라고 오스구토프 형제는 말한다.

오스구토프 형제는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훌륭하게 가르칠 때 회원들도 간증이 강해져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와드에서 복음 교육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은 회원들의 충실성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가 많아진다면, 성전에 가고 성전에서 결혼하는 젊은이가 늘어난다면, 경전을 읽고 가정의 밤을 하며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여하는 부모가 늘어난다면 복음 교육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교수법 향상 자료

회원들이 경전,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물품번호 36123 320) 교재, *교회 지침서, 제2권*, “복음 교육 및 지도력” 편을 공부한다면 더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87쪽) 가르치라고 당부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교사가 교재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이야기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과 회원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 마음속에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77년], 619~620쪽)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 나오는 복음 교육 과정은 교회 회원들이 가르치는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돕고 더 훌륭하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과정은 영으로 가르침,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함, 효과적인 교수법을 사용함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교재는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이용 문의는 지역 배부 센터로 연락한다. ■

교사 향상 프로그램 변경 사항

제일회장단은 2006년 11월 17일자 서한에서 교사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중단된 정책과 유지되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단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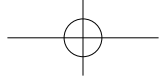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스테이크 교사 향상 책임자와 와드 교사 향상 책임자 직책은 중단되었다.

분기별 교사 향상 모임은 중단되었다.

유지되는 정책

교사 향상 책임자가 맡던 책임은 이제 와드 또는 지부 주일학교 회장이 맡는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 나오는 교사 향상 과정은 필요에 따라 계속 가르칠 수 있다.



봉사를 시작하는 신임 선교부 회장

10 0명이 넘는 신임 선교부 회장 부부들 대다수가 이번 달에 세계 곳곳에서 3년간 봉사 임기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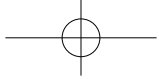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선교부	신임 회장
엘라배마 버밍햄	리차드 앤 홀자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북	리차드 엠 굴브랜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	마이클 제이 스타플리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알프레도 엘 살라스
애리조나 메사	알 스펜스 엘스워스
애리조나 템피	딘 엘 호우스
아르메니아 예레반	리스 에이 카터
호주 브리즈번	프릿조프 에프 랜지랜드
호주 멜버른	데니스 알 리프스
호주 퍼스	폴 엘 카훈
브라질 캄피나스	알 마셜 태너
브라질 쿠리치바	데릭 엘 코든
브라질 고이아니아	라몬 시 프리에도
브라질 주앙페소아	고든 제이 홀
브라질 룬드리나	에두아르도 엘 엠 타바레스
브라질 히베이랑프레투	길슨 알 프리에도
브라질 산타마리아	이사이아스 디 히베이루
볼리비아 라파스	헥터 케이 쿼타날라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페르난도 이 칼데론
캘리포니아 칼즈배드	브루스 엠 쿡
캘리포니아 롱비치	테드 에프 부버트 이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스티븐 알 베이커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윌리엄 이 자딘
캐나다 에드먼턴	크리스 더블류 캠벨
캐나다 몬트리올	넬슨 시 캐넌
캐나다 토론토 서	브래드포드 제이 브라우어
칠레 안토파가스타	리랜드 이 브루스
칠레 콘셉시온	니올 더블류 험프리
칠레 랑카과	제임스 디 맥아더
칠레 산티아고 서	리처드 더블류 킹
콜로라도 덴버 남	앨런 알 메이네스
콜롬비아 바랑키야	카를로스 에이 가비리아
체코 프라하	데이비드 알 어윈

콩고민주공화국 루분바시	덴마크 코펜하겐	에콰도르 과야킬 남	영국 리즈	플로리다 잭슨빌	플로리다 올랜도	플로리다 텔러해시	플로리다 탬파	과테말라 레탈룰레우	하와이 호놀룰루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아이다호 보이시	인도 방갈로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이오와 디모인	이탈리아 밀라노	이탈리아 로마	일본 나고야	케냐 나이로비	한국 대전	멕시코 치와와	멕시코 쿨리아칸	멕시코 레온	멕시코 메리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동	멕시코 멕시코시티 북서	멕시코 멕시코시티 서	멕시코 몬테레이 동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미시간 디트로이트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몽골 울란바토르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서	뉴햄프셔 맨체스터	뉴멕시코 앨버커키	뉴멕시코 파밍턴	뉴욕 로체스터	니카라과 마나과 북	니카라과 마나과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리 엘 패커	젠스 에이치 앤더슨	자비에르 몬탈티	제럴 디 린들리	제임스 더블류 배리	가스 브이 홀	데일 켄슨	브루스 피 서머헤이스	호세 이 마라빌라	존 시 돌턴 4세	로널드 엘 베이어스	켄트 에이치 캐넌	랜디 디 펀크	켄트 에이치 콜린스	조지 에이치 그로버그	더크 오 저겐슨	데이비드 알 울프그램	토머스 켈리	스코트 오 베어드	스티븐 에이치 브로드벤트	마크 시 퍼니스	게라르도 앙굴로	롤랜드 칸투	카림 델 발레	네차우알코요틀 살리나스	로버트 에이치 혁켄	툼 알 터보트	카를로스 빌라리얼	앨런 알 워커	니콜라스 카스타네다	더글러스 디 홈즈	스티븐 디 클라크	크리스 제이 미캠	제리 비 블랙	데이비드 엘 월키	웨인 케이 밀러	스펜서 브이 존스	잭 알 크리스천슨	카를로스 에프 아래돈도	자비에르 에프 모네스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이지리아 에누구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파나마 파나마시티	파라과이 아순시온 북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페루 아레키파	페루 쿠스코	페루 리마 북	페루 리마 서	페루 트루히요	필리핀 부투안	필리핀 카가안데오로	필리핀 카우아얀	필리핀 일로일로	필리핀 나가	필리핀 케손시티	폴란드 바르샤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사마라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남아프리카 더반	스페인 말라가	대만 타이청	텍사스 포트워스	텍사스 매캘런	텍사스 샌안토니오	통가 누쿠알로파	우간다 캄팔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서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남	유타 세인트조지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버지니아 리치먼드	워싱턴디시 북	워싱턴 에버렛	워싱턴 케너윅	워싱턴 시애틀	위스콘신 밀워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존 케이 부아	놀란 에스 테일러	크레이그 엘 와드	호라시오 디 마다리아가	윌리엄 에이 스캐퍼메이어	아르투로 페르난데스	윌슨 비 칼데론	로렌스 피 블런크	제이 스코트 도리우스	테리 디 터크	메르나드 피 도나토	윌리엄 에이 헤르나에즈	로돌포 에이 카를로스	라이언 브이 파가두안	로날드 디 블리에스네	데이비드 더블류 델라마레	스탠퍼드 더블류 닐슨	조지 엠 알바라도	스티븐 제이 소렌슨	랄프 제이 사토리	리차드 로기아	제임스 시 본 스테튼	리처드 알 클레그	클라크 티 비숍	조셉 엠 사게스	스티븐 제이 트레이너	스티븐 이 존스	아이사케 케이 투쿠아푸	에릭 시 잭슨	로널드 더블류 히튼	브루스 알 윈	브루스 이 밀러	키스 지 레너드	조지 지 몬토야	제임스 시 페리	제임스 알 마주모리	디 키스 윌슨	레너드 디 그리어	토드 에스 라킨	티머시 엠 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회 선교부 변경

교회는 변화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배할 목적으로 선교부 열 개를 새로 조직하고 다른 선교부들을 인접 선교부와 통합했다. 이러한 변경에 따라 선교부 수는 340개가 된다.

교회에서 새로 조직한 선교부는 다음과 같다.

콩고민주공화국 루뎀바시, 과테말라 레탈롤레우, 멕시코 멕시코시티 북서,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뉴멕시코 파밍턴, 니카라과 마나과 북(니카라과 마나과 선교부는 니카라과 마나과 남 선교부라 불릴 것임), 페루 쿠스코, 페루 리마 서, 필리핀 일로일로, 유타 세인트조지.

교회에서 통합한 선교부는 다음과 같다.

호주 멜버른 동 선교부와 서 선교부는 호주 멜버른 선교부가 된다.

호주 시드니 북 선교부와 남 선교부는 호주 시드니 선교부가 된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와 서 선교부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가 되며, 동 선교부에 속했던 일부 지역은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동 선교부와 서인도 제도 선교부로 통합된다.

독일 함부르크 선교부는 독일 베를린 선교부 지역으로 편입된다.

독일 뮌헨/오스트리아, 스위스 취리히,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교부들 가운데 일부는 알프스산맥 독일어 선교부가 된다.

일리노이 시카고 북 선교부와 남 선교부는 일리노이 시카고 선교부가 된다.

일리노이 피오리아 선교부는 재편성된

아이오와 디모인,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네브래스카 오마하 선교부로 통합된다.

아일랜드 더블린 선교부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선교부는 스코틀랜드/아일랜드 선교부가 된다.

이탈리아 카타니아 선교부는 재편성된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와 이탈리아 밀라노 선교부로 통합된다.

일본 히로시마 선교부는 재편성된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와 일본 고베 선교부로 통합된다.

한국 서울 서 선교부는 한국 서울 선교부에 편입된다.

뉴저지 체리힐 선교부는 재편성된 뉴저지 모리스타운 선교부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선교부로 통합된다.

오하이오 신시내티 선교부는 재편성된 오하이오 컬럼버스 선교부와 웨스트버지니아 찰스턴 선교부로 통합된다.

스페인 빌바오 선교부는 재편성된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교부,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부, 스페인 말라가 선교부로 통합된다. ■

뉴스 속에서

하버드 법대생들 앞에 선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최근에 하버드 법대 학생들이 주최한 제5회 물론주의에 관한 101가지 연례 강의에서 연설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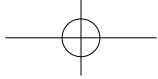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해마다 하버드 법대 후기 성도 학생단체는 교회 회원 한 사람을 초청하여 물론의 기본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는다.

옥스 장로는 후기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으며, 이 세 분은 각각 독립된 개체이며 목적에서는 하나라고 설명했다. 옥스 장로는 또한 구원의 계획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설명했다.

옥스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가 발휘하는 효력에 대해 간증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빚어내는 기적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신으로부터 그것이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으며 그 사실을 선포하는 데 제 생애를 바칠 수 있어 기쁩니다.”

이어서 옥스 장로는 교회에서는 현대에 받은 계시와 경전을 포함하여 진리의 근원을 믿는다고 설명했다.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철학이 아무리 유서 깊고 훌륭하다 해도 우리는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계시에 기초합니다.” ■



추기경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는 공동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

추기경으로는 처음으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 예하(가톨릭에서 추기경을 높여 이르는 말-옴긴이)는 가톨릭교도와 후기 성도들이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의 도덕 관념을

보호하지 못할 때 인간의 자유를 지킬 책임은 종교 단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종교 단체에게 돌아갑니다.”라고 조지 추기경은 말했다.

시카고 대주교이자 미국 가톨릭 주교회 회장인 조지 추기경은 미국 유타 주 프로보 소재 메리어트 센터에서 후기 성도 학생과 교직원 12,000명에게 연설했다.

그는 “가톨릭교도와 후기 성도들이 공통된 도덕 신조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신뢰하는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양쪽 교회는 조지 추기경이 언급한 낙태, 외설물, 동성 결혼 등과 같은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조지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나 개인의 양심의 자유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인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공공 광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세계 단신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옥든 성전

지은 지 약 40년이 된 유타 옥든 성전이 18~24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성전 내부 주요 설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외관은 석재와 유리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 건물은 지진에 잘 견디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최신의 기술을 도입한 설비를 갖추도록 개조될 계획이다. 또한 지하 주차장도 증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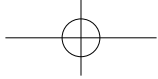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영광의 꿀벌 펜던트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긴 것과 관련하여, 이제 필수 요건을 마친 후에 더 많은 계획을 완수한 청년들은 영광의 꿀벌 펜던트를 받는다. 이 펜던트를 받으려면 청년 표창 메달을 받은 후에 물문경을 다시 읽고 40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다른 청년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완수하도록 돕는 일도 봉사 활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작은 펜던트는 청년 표창 메달과 함께 목걸이에 건다.



라틴아메리카 성도들을 다룬 전시회

교회 역사 박물관은 최근에 “Mi Vida, Mi Historia: 라틴아메리카 성도들의 신앙과 영감 어린 이야기”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2개 국어를 사용하여 진행된 이 전시회는 회원 24명이 생활 속에서 겪은 영적 경험을 조명한다. 회원들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장 곳곳에 걸려 있으며 방문자들은 쌍방향 시청각실에서 각 회원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전시회는 인터넷 lds.org/museum에서 스페인어와 영어로 볼 수 있다. Exhibits and Galleries를 클릭한 다음 Current Exhibits를 클릭하면 된다. ■



애독자 편지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일회장단

제일회장단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그 가르침을 어린 아이들과 십대들에게 적용할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방문하는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단순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무엇보다도 영속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제일회장단에 계신 분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디아스 가족, 브라질

너무나 귀중한 포스터

이 잡지에 나오는 포스터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귀중합니다. 포스터는 교회 가르침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우리는 현관문 옆에 액자를 걸어 두고 몇 주마다 한 번씩 포스터를 갈아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은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1년 이후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포스터는 모두 인쇄했습니다. 우리에게서 포스터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슈바르츠발더 가족, 독일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 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도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부름에서 봉사하며 받은 축복”, 11쪽: 공과를 가르치면서 기사 속 자매가 온 마음을 다해 봉사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녀의 짐을 덜어주셨는지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주님께 봉사했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나누도록 권유한다.

“개척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16쪽: 이 기사에서 스티븐 엘 리차즈 회장님이 언급한 네 가지 지혜를 열거한다. 이 네 가지 지혜가 가족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데 각각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자신 있게 복음을 나눕시다”, 30쪽: 이 기사에서 다음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족과 함께 토론한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과 친절을 담아 그 믿음을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된 교리를 가르칠 때, 진리는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안 돼!” 하고 말했다”, 58쪽: 이 이야기를 읽거나 요약한 후, 유혹에 처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역할극으로 해본다. 가족들은 체이스가 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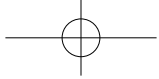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가정의 밤은요?

“가정의 밤은요? 오늘 가정의 밤 안 해요?” 여섯 살 난 딸 레이라니가 물었다. 죄책감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남편과 나는 가정의 밤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 레이라니의 말을 듣고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가정의 밤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결심했다.

레이라니와 여동생 나디아는 점점 커가면서 가정의 밤 시간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가르치고 싶은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시각자료를 직접 그리기까지 했다. 딸들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종종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나는 “가정의 밤은요? 오늘 가정의 밤 안 해요?”라는 말을 다시 듣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바로 이때가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점을 안다.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면 원칙을 지킬 줄 아는 남자와 여자를 양육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패트리샤 카르테나스 데 프라도, 과테말라



싸워야 하는가, 도망가야 하는가,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열 네 살 되던 해,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나는 학교 담벼락으로 내몰려 불량소년에게 구타를 당했다. 그 아이의 친구 여섯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 소년은 주먹으로 나를 때리고 발로 찼다. 수도 없이 많이.

마침내 그 아이와 친구들은 떠났고, 내가 탈 버스가 왔다. 버스에 올라탄 나는 내릴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심하게 행동한 건지,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인내심을 발휘한 건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르겠다.

이 경험은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부딪치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되새기게 한다. 우리 믿음이 공격받을 때 맞서 싸워야 하는가, 도망가야 하는가,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태복음 5:39) 예수님께서서는 흔히 사람들이 하듯이 잔인하게 복수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단지 은유법을 사용하신 것일까? 나는 종종 그게 궁금했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권고를 생각해 보자.

1833년에 교회는 격심한 박해를 겪었다. 특히 미주리 주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다. 교회 회원들은 목숨을 지키려고 무기를 들었다. 그 시점에 주님께서서는 98편을 계시하셨다. 그 계시에서 주님께서서는 최대한 참고 견디라고 가르치셨다. 회원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참는다면 주님께서 보복을 하실 것이었다. 박해자들이 용서를 구할 때면, 성도들은 “일곱 번씩 일흔 번”(40절)을 용서해야 했다. 싸우러 나갈 때에는 먼저 평화를 청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경우에만 싸움에 참가해야 했다.



사진 출처: 데이비드 스토킨거

박해받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 끔찍한 시절이 지나고 시대도 변했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는 여전히 공격을 받는다. 우리의 교리는 일반적으로 오해를 받는다. 터무니없는 억측, 불합리한 비난, 명백한 거짓말이 진실인 양 난무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아서 18:9) 되려고 노력하는 제자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도망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최근 연차 대회에서 논쟁점에 관해 교회 입장을 설명하는 여러 말씀을 주목했다. 연사들은 맹공격을 퍼붓지도, 그렇다고 항복을 하지도 않았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이들과 공통점을 찾는 연사들도 종종 있다. 선지자들은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며 이해하고, 또한 이해 받으려고 노력한다.¹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당하는 게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따금 더 나은 선택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다. ■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사랑과 울법”,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26쪽; 제프리 알 홀런드, “영혼의 안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8쪽; 제프리 알 홀런드, “나의 말도…… 결코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1쪽; 로버트 에스 우드, “주님의 평화의 도구”,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93쪽 참조.